

성도의 빛

2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987년 2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

에스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패러모어

통 권 : 제 250 권, 제 23 권 제 2 호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STOCK NO. PBMA 0540 KO
PRINTED IN KOREA 2/87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 (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 (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판장단 메시지 :

청소년 페이지

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34 몰모나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판장

35 의 가운데 함께 함

9 2월 방문 교육 메시지

아데스 지 캡

11 나의 가정 복음 교사,

40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나의 친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윌리엄 와넷 밀러

44 광대 아저씨가 좋아요

13 안나 리이사 린 : 봉사를 통하여

멜빈 레비트

자신의 삶을 찾음

마자 리이나 키비니아에미

어린이 차지

18 길레르모

50 점 잇기

레논 클로스너 홀레트

52 또 다른 종류의 용기

20 잊혀진 성도들의 섬

루이즈 허드

이브스 페린과 캐슬린 페린

54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안

25 “왜 슬트레이크 시티에

물문이 또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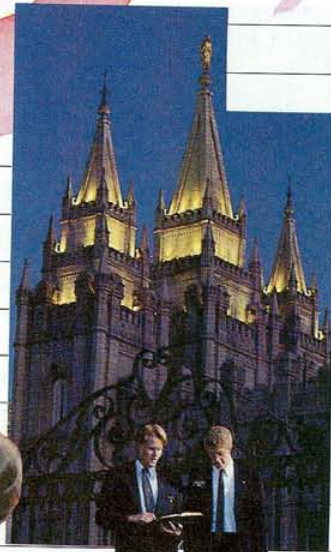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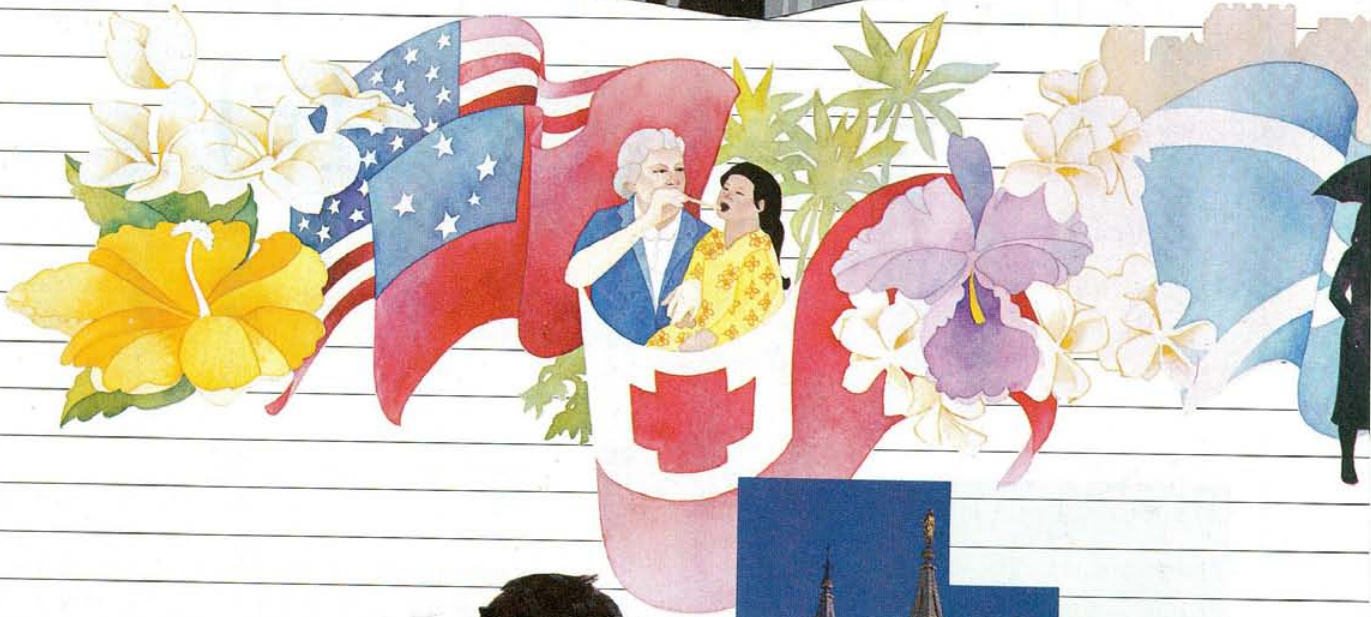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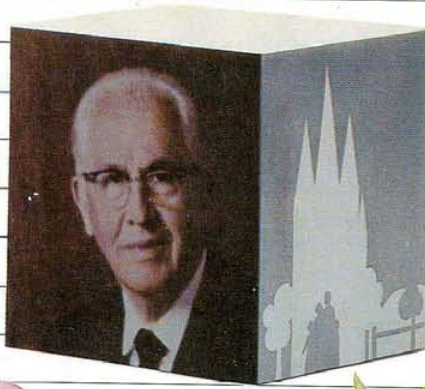
57 우리의 지도자들을 알아봄

재닛 피터슨

58 지역 소식

30 더 강한 가족을 일으켜 세움





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발전을 우리가 영감으로 전달된 복지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936년 4월 5일 일요일이었던 당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매우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그의 두 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부대관장을 동반하여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임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영원한 원리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맥케이 부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조직(교회)은 거룩한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 세상에서 그 회원을 우리처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조직은 온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5페이지 인용)

나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던 그 해에 주어진 중요한 말씀과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훈계를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교회 복지 원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함에 있어 나는 우리가 마땅히 그런 초기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과 결단력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해 10월 연차 대회에서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대관장단의 성명서를 읽으셨으며 그 성명에서 교회 복지 사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낱익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의 체제를 설립하여 이 체제 하에서 저주받을 게으름과 또 실업 수당에 의한 폐단이 가능한 한 없어지고 자립, 근면, 절약, 자존심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 교회 회원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로 다시 정립되어야 하겠습니까.”(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5페이지 인용)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음

그렇게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한 교회로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 원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절차는 수정되었으며 변화하는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변화가 시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 계시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져 왔습니다. 나는 이 지도적인 원리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일, 자립, 건전한 재정 관리, 일년치 필수품, 친척을 돌봄(같이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 뿐이 아님), 현명한 교회 자원 관리.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경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첫번째 지시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창 3:1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1939년에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이 권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일을 고상하게 여겼으며 게으름을 질책했습니다. 우리 책, 우리 설교, 특히 우리의 현재 대관장님을 포함하여 우리 지도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꿀벌 — 데세레트(데저렛) — 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신앙을 갖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 교리와 우리의 장래의 지위의 기초가 되는 요점이며 우리의 하늘은 끊임없는 노동을 통한 영원한 진보의 관점에서 마음으로 그리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25페이지에서 인용)

자립은 우리의 일의 산물이며 다른 모든 복지 업무를 단단히 결속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한 요소입니다. 이 원리에 관하여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자립하고 독립하십시오. 구원은 다른 어떤 원리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영적인 것 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룩해야 합니다.”(복지 봉사 모임 보고, 1976년 10월 2일, 13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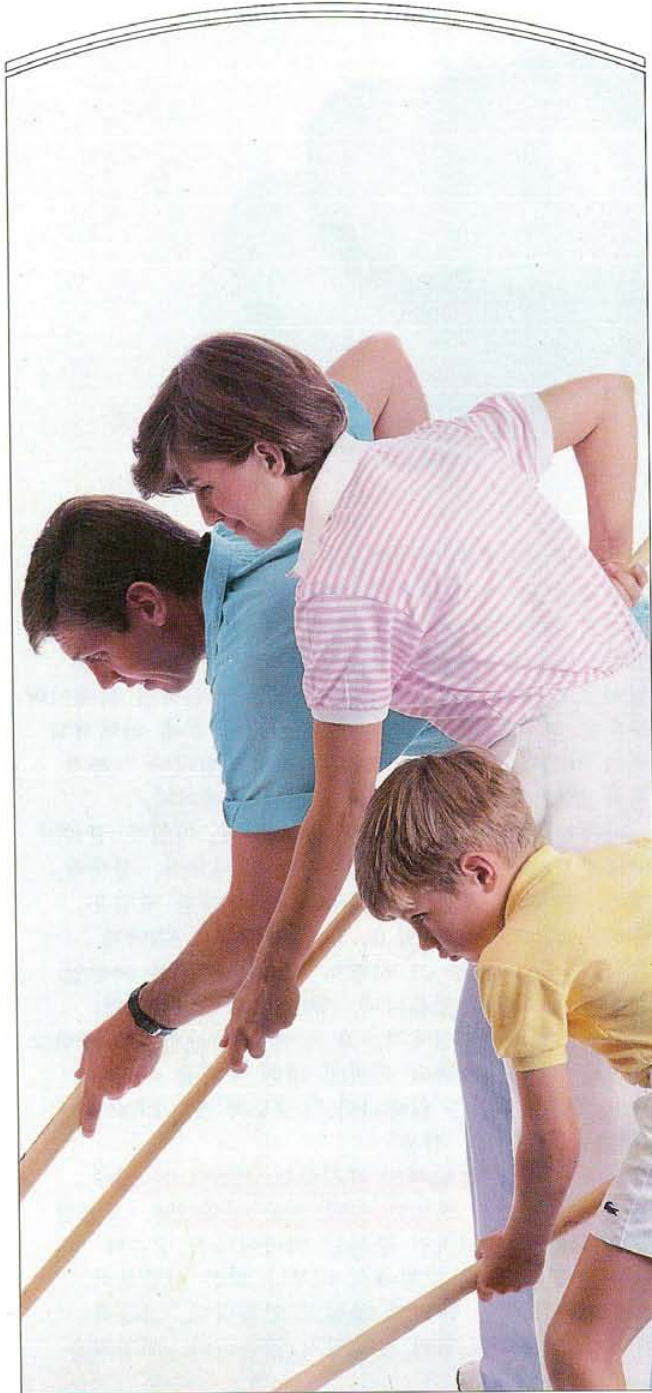
나아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자립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 사람의 사교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은 우선은 그 개인에게 있고, 다음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경우에 교회에게 있습니다. 참다운 말일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습니다.”(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7페이지 인용)

우리의 수입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반복해서 전해진 권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나라의 개인적인 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저축은 거의 갖고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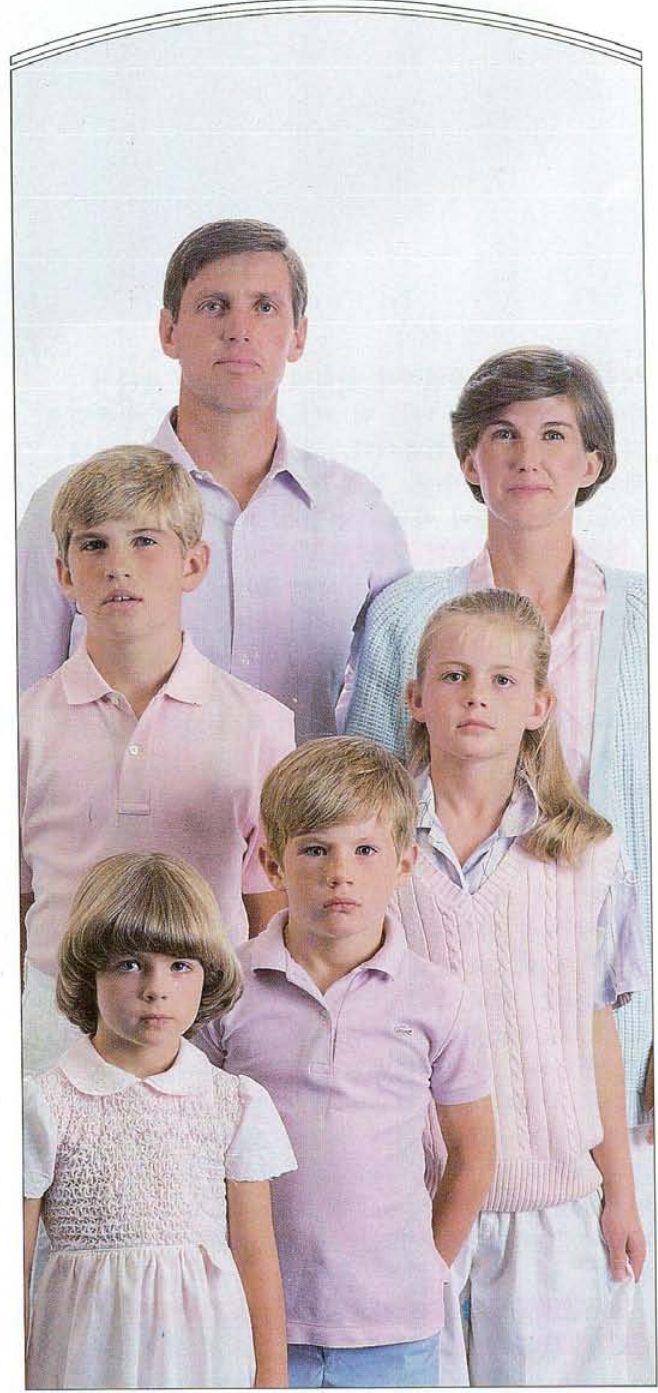
예산을 세우고 우리의 재산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위하여 일부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분명한 권고보다 부채의 무거운 짐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가르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재정 및 경제 생활의 규칙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볼까요?”

“이자 는 결코 잠자지도 않으며, 병들거나, 죽지도 않으며,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일과 휴일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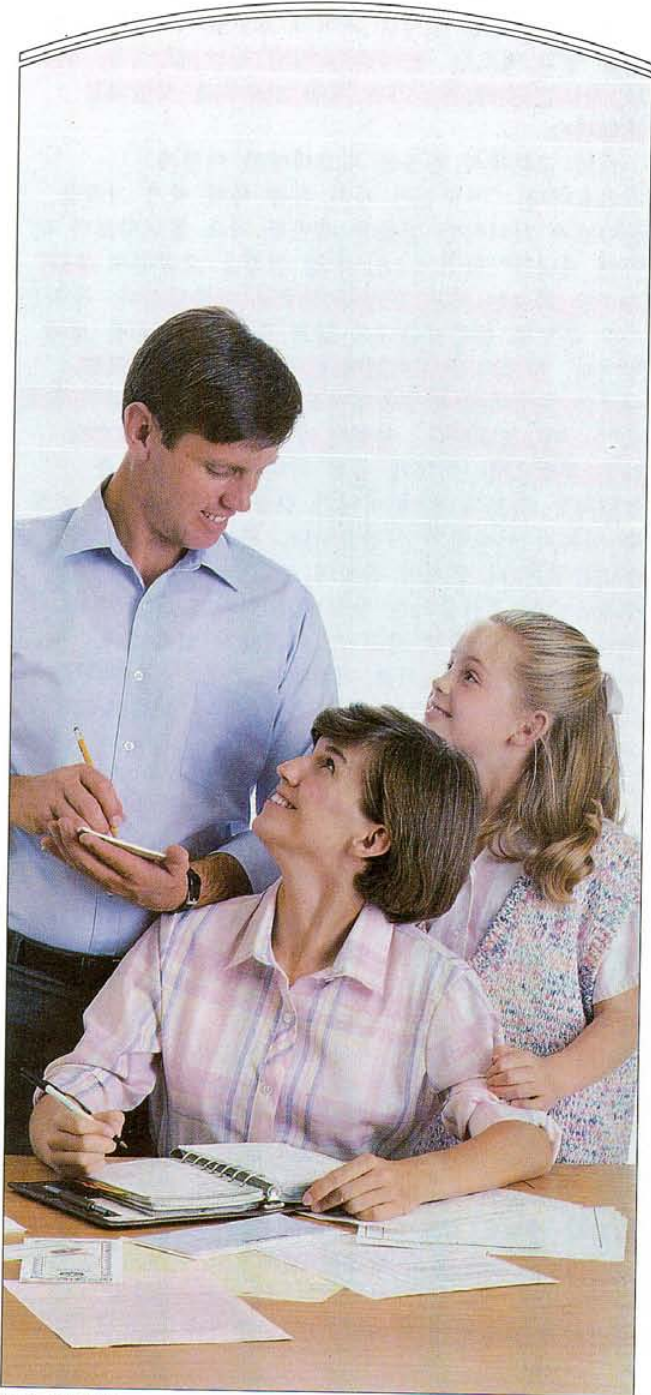


일하며, 휴가를 가는 적도 없고 방문이나 여행을 하지도 않으며 여가를 즐기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하거나 퇴직당하는 일도 없으며, 세금을 내지도 않고 식량을 사거나 옷을 입지도 않으며 집에서 내쫓기지도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판도 필요없고 배관 작업, 도색 혹은 회반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처자도 없으니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생활비 지출이 없으며, 결혼, 출생, 사망이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벽창호같이 지독하고 무정합니다. 일단 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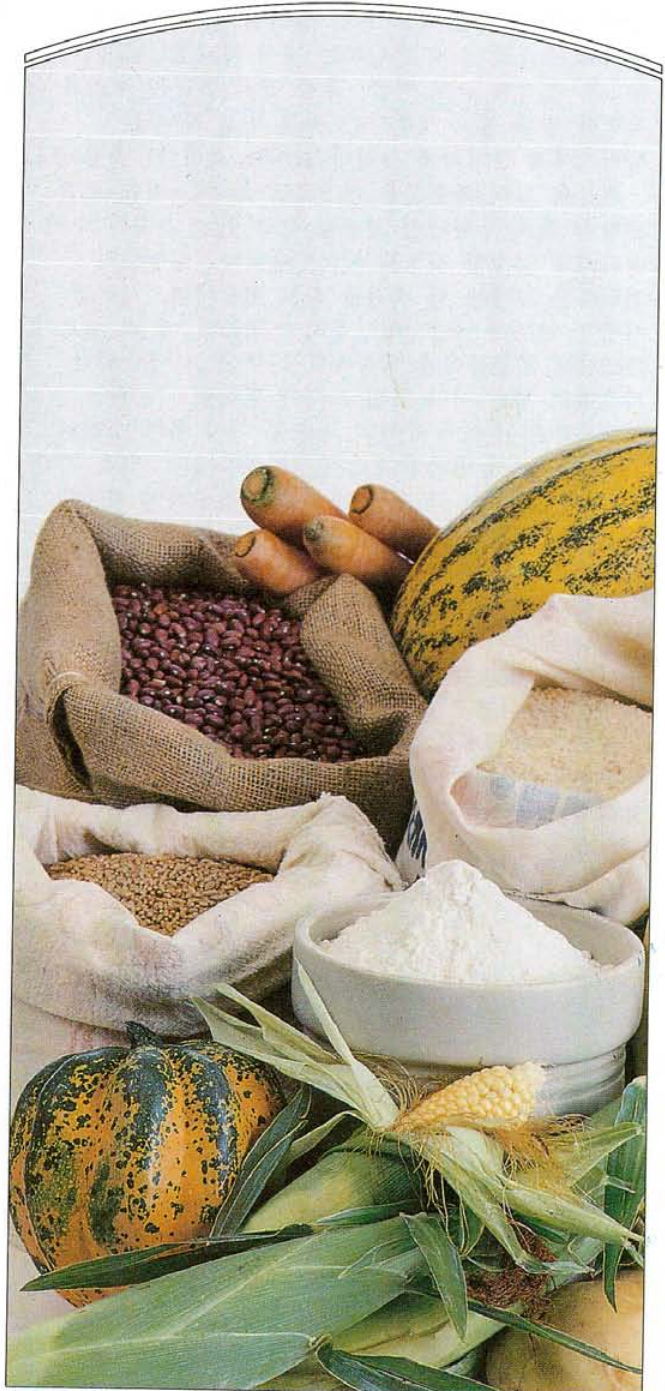
지지만 하면 이자는 밤낮으로 항상 여러분을 따라 다녀
 여러분은 이자를 피하거나 빠져 나갈 수도 떠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자는 애원과 요구와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거나
 그의 길을 가로지르거나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때는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21페이지 인용)
 어떤 과부의 헌금

건전한 재정 관리에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다른 궁핍한 사람들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에게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싶다면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젊은 감독으로서 어느날 밤늦게 병원으로부터
 우리 와드의 어떤 과부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 병원으로 가서 그녀의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따라야 할 절차라고 하는
 노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초라한 지하실
 아파트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작은 거실에 있는 작은



탁자로 갔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두개의 작은 병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냥하고 작은 체구의 과부인 캐슬린 맥키는 남은 친척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런 쪽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감독님, 이것은 나의 금식 헌금입니다. 나는 그저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저 늘 주님과 함께 있었는지 우리 서로에게 단순히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금식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7) 정직한 금식 헌금, 후한 금식 헌금은 우리가 이 특별한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일년치 물품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가 심각하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해롤드 비리 장로가 1943년에 회원들에게 말씀하면서 주신 그 영속적인 가르침의 영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권고를 다시 하며 우리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가진 모든 말일성도는 그 위에 소중하고 필수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937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하실과 개인 창고와 곡식 창고에 일년치 물품을 충분히 저장했습니까? 도시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1942년 이 단상에서 전하신 말씀에 귀기울였습니까?**(1943년 4월 연차 대회)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으로부터의 영감에 찬 호소가 이 직접적인 요청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은 그

호소에서 이런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식품 생산, 비축, 관리 및 주님의 권고의 견지에서 볼 때 밑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물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밖의 필수품에는 **꿀, 설탕, 콩, 우유 제품 또는 그 대용품, 소금 또는 그 대용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 시대에 백성들에게 방주에 오르라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실적인 복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54페이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고 제도는 각 가족이 일년 동안 쓸 식품, 의복 및 가능한 곳에서는 기타 생활 필수품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우리 친척을 포함하여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모를 등한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사회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필수품까지도 자녀가 돌봐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일곱 자녀가 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보다 한 어머니가 일곱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드리는 주요 책임은 사회에 있지 않고 그 가족에게 있습니다. ...집안 식구를 돌보기를 거절하는 가족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1981~1982년 상호부조회 교재, 19페이지)

교회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함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원리는 **교회 자원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주님의 창고에는 충실한 교회 회원의 시간, 재능, 기술, 사랑, 헌납한 물건, 재정적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에 이런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님들은 이런 자원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독은 늘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독의 신권 책임입니다. 회원들이 도와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책임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둘째, 감독은 복지 원조를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필요 사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평가에 있어서



상호부조회 회장의 도움을 현명하게 요청합니다. 감독은 분별력, 건전한 판단, 조화, 사랑을 발휘합니다. 교회 자원은 거룩한 신뢰를 뜻하며 감독이 이런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때 더욱 거룩해집니다.

셋째, 복지 원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하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은 복지 사업 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그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강화시켜 줄 일을 제공하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감독이 주는 도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해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원의 재활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도움을 받아 개인과 가족이 수행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도움을 받는 한사람 한사람을 완전한 자립으로 인도하는 인격, 자존심, 품위, 건전한 성격을 쌓으려고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도움을 줍니다. 개인과 가족은 자기 자신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활 수준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실업 수당을

준다면 교회가 더 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실업 수당보다 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보다 더 명예롭고 보다 더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위기의 시기에 도움

이런 계시된 복지 원리와 관행에 충실하게 응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여러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일부분을 황폐케 한 1985년 지진에 대한 교회 회원의 대응에서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과 지도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일어서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예비 프로그램 노력에 의하여 모은 것을 끌어냈습니다.

또는 1976년 여름에 아이다호 티튼 댐 재난을 보십시오. 당시에 수천명의 말일성도가 홍수에 모든 재산이 씻겨 간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저장품을 주었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교회 회원들이 대규모로 노력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의 예언자이며 지도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이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전쟁으로 황폐케 된 유럽에서 궁핍한 회원들에게 75량 이상의 화차에 실은 물품을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회원들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로 그런 원리를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판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는 금년도 전반기로부터 시작하여 스테이크 대회 때 모든 성인 회원이 참석하는 토요일 저녁 대회는 이런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데 쓰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진전은 거룩하게 계시된 복지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좀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 이 중요하고 영원한 복지 원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충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이런 복음 원리에 일치시키려고 할 때 개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준비를 갖추고 가르치고 승화시키고 쌓고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프로그램이며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 승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봉사 상호부조회의 핵심

목적 :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됨으로서 여성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슴에
심어 놓으신 연민의 정에 따라 행동할”(상호부조회, 1984년 교재,
52페이지)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 34). 상호 부조회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자매들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병든 자를 방문하고
봉사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위안하고 서로가 좀더 구세주처럼
되도록 돕는다. 초기에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요셉 스미스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본대로 너희가 행할지니라.”

2 월 방문 교육 메시지

메리 프렛의 모범

메리 스타크 프렛은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이며 멕시코 선교부장이었던 레이 엘 프렛 장로의 부인이었다. 이 훌륭한 여성은 열세 자녀의 어머니였으며 자기 가족과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 이외에도 선교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녀는 상호부조회가 여성들을 위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는 방식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었다.

메리는 가사 공과를 가르치면서 기술이 없는 자매들에게 집을 빨리 청소하는 방법, 수선하고 꿰매는 기술, 바느질하는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자기 집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나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매들에게 멕시코의 민속 자수 기술을 배우고 자수 의류와 가정용품을 만들도록 권장했다. 도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수공품을 사려고 너무나 열광적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자매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기술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다시 배가했다.

메리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도

계속해서 보였으며 누구의 지명을 받지 않아도 언제나 즉각적인 봉사를 했다. 집에서 멀리 떠나온 수줍고 불안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위대한 가치를 확신시켜 주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게 해 주는 격려와 이해해주는 마음을 메리에게서 찾게 되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윈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발견할 필요 사항 가운데는 초기 성도들의 필요 사항과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영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다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교성 20:77; 모사 18:8-10 참조) 그분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말하고 행동할 줄 몰랐을 것들을 말하고 행하도록 축복받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정말로 우리가 봉사에 대하여 넓은 시야를 갖도록 축복해 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 놓으신 연민의 정에 따라” 사랑하고 봉사할 위치에 있게 해준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방문 교육, 상호부조회 부름, 자선 봉사 등과 같이 자매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받은 봉사 기회에 대하여 토의한다. 이런 기회가 자신과 다른 사람 생활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나?

2. 상호부조회 공과나 다른 자매들과의 친분이 그 자매가 주변 사람에게 보다 더 잘 봉사하도록 어떻게 강화되어 주었는지 토의한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 나의 친구

윌리엄 와넷트 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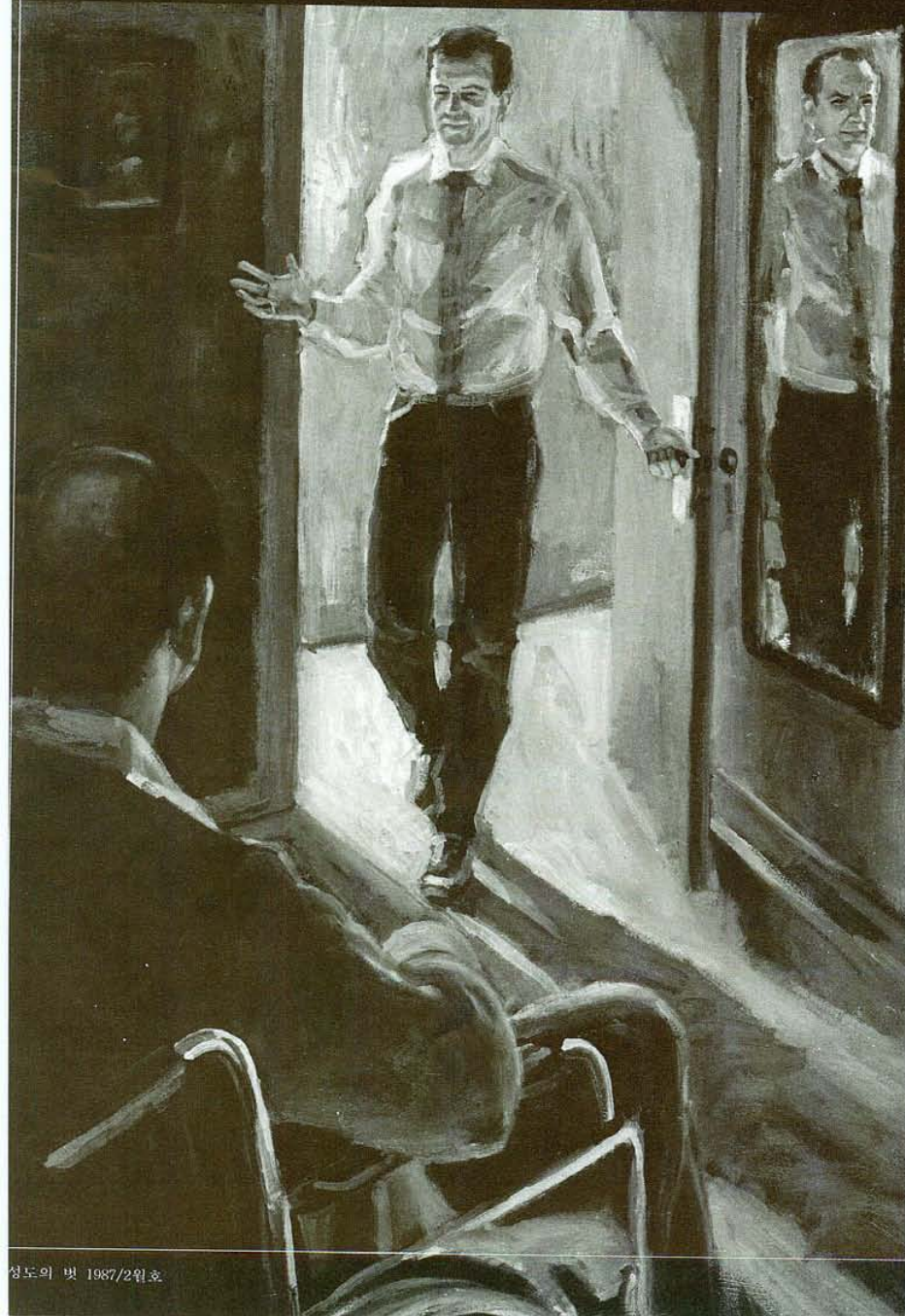
나는 신장 수술을 받고 약해진데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실의에 빠져 있었다. 인생은 건달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병들었고 목 아래의 전신이 마비되었고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내가 마음을 들릴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나는 십년 동안 비활동으로 있으면서 부드러운 말씨에 꾸밈없는 가정 복음 교사인 브레드 케이 로빈슨 이외에는 교회와 공식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 나는 브레드를 안지 이년이 되었으며 그를 친절하고 사려깊은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이 최저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가 나의 병실로 들어섰던 순간까지는 그가 무엇을 대표하며 그가 가지고 온 희망과 약속이 나의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년 전에 내가 브레드와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은 전화를 통해서였다.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교회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찾아 보도록 부탁했으므로 브레드가 나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았다. 브레드는 나에게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한번도 못 만났지요?”

나는 비꼬는 투로 “내 다리가 나를 일요일에 교회로 데려다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 예. 때로는 나도 일요일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킬킬거리며 웃고 나서 나를 만나러 와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좋다고 하면서 내 팔다리가 모두 마비되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집으로 와서 내 형편을 목격한 다음 슬픈 표정으로 나를 향하여 잠시 가만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전염성이 강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목표는 자동차 사고와 그 결과로서 생긴 마비로 인하여 나오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

브레드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와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두번 다시 그를 못보리라고 생각하면서 “물론이지”라고 대답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도 브레드는 계속해서 왔다. 심지어는 내가 “가라!”는 말 밖에 안 할때도 그는 결코 나의 언짢은 기분이나 불쾌한 감정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다시 돌아 와서 이야기만 하고 또 무엇이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가 처음에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왔을 때에 우리는 교회나 하나님 또는 기타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브레드는 인쇄심이 많고, 사물을 꿰뚫어 보고 또는 그저 예의상—어는 것이 정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 것 같았다. 친구가 별로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브레드가 친구가 되었다.

이내 우리의 우정은 자랐다. 나는 그를 오래 알면 알수록 그의 성격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성격—그의 조용한 내적인 평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그의 정직성과 꾸밈없는 태도—을 생각나게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나의 성실한 가정 복음 교사이며 이제 친구가 된 브레드가 그날 나의 병실에 조심스럽게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었다. 내가 교회로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복음의 진실함과 그 증거가 나의 존재를 씻었으며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평안이 내 가슴을 채웠다. 나의 자기 연민과 악감정이 줄어들었으며 버림받은 느낌이 물러갔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전에 브레드에 관하여 이상하게 낯 익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당혹스럽지 않았다. 그는 한때 내가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신권과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의 나 자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희망을 안고 새롭게 되어 감동이 나를 방문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시 린 마호니 감독이 와서 아직도 좋은 사람들—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친절하게 나의 당장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내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따뜻하게 권고했다. 그는 그 이후로 내가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성전에서 나를 인도하고 거들어 주며 몇몇 형제들에게 신권회와 성찬식에서 나를 도와주도록 요청함으로써 내가 활동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가정 복음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가? 나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헌신적이고 끈질긴 가정 복음 교사와 인생에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던 시기에 그가 방문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두번째 기회를 갖고 있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복음이 희망을—구원에 대한 희망 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윌리암 와넷 밀러는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대학 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안나 리이사 린 :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찾음

마자 리이나 키비니에미

소아과 의사인
독신 어머니가
자기 생애를
선교 사업에 바침

1960년 봄에 핀랜드의 헬싱키에서 두 선교사가
가가호호 방문 중 어느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화가 난 여자를 한 사람 만났다. 그녀는 만일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왔다면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선교사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한다는
설명을 끝내기 위하여 문에 발을 들여 놓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교회 이름을 듣자마자 문을 열고 두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의 생활에 감동을 준 한사람의 개종이
시작되었다.

그 여인은 안나 리이사 린이었다. 직업은 소아과
의사. 그녀는 이혼한 네 자녀의 어머니였다. 지금 와서
그녀는 회상한다. “그 선교사들이 교회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문득 1946년 즉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핀랜드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납하고자
방문하고 있었을 때 그 사실을 다루었던 신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교회의 길고 독특한
이름을 핀랜드 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진한 신앙을 가진 의사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물문경에 대하여 가르쳤다.
안나 리이사 린은 그대로 믿었다. 사실상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직장 동료들에게 아메리카
인디안의 기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물문경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었다. 그녀는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 매우
특이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 복음 메시지가 그녀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졌으며
헬싱키로부터 쿠오피오로 이사했을 때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였다.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침례를
주려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그만 오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서웠습니다. 나의 전공 분야에서의 친분 관계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별나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으므로
마침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말았다. 곧 선교사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내가 커피 마시기를 중단했을 때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아파트가 있었으므로 지부 전체가 우리 집에서 모일 때도 자주 있었으며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의 싸움도 줄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집안에서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을 배움

쿠오피오 지부에서 안나 리이사 린은 곧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그 지부가 예배당을 짓고 있을 때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다. 또 건축 감독의 통역과 메시지 전갈을 맡았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에 우리 지부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물 공급자를 다루는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건축 노동자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는 일도 감독해야



어떤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자녀 가운데 세 사람이 그녀와 함께 가입했으며 그들은 모두 다 아직 활동적인 말일성도이다. “내가 처음에 복음을 배울 때 애들은 문 뒤에서 웃곤 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은 다음 그들이 선교사 토론을 한번은 들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애들이 꼭 한번만 듣기로 약속했으니 잘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매우 훌륭한 용단을 준비해서 가르쳤으며 다 가르치고 나자 아이들은 자기들도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인 아이키는 나중에 그가 교회에 가입한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린 자매는 웃는다.

린 자매의 딸인 카리나 메렌루오토는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의 생활이 크게 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좀더 젊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우리는 상당히

했습니다.” 한동안 이 소아과 의사는 교회 건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전에 쿠오피오 지부의 회원이었으며 지금은 그 자신이 의사가 된 안나 카리나 로토 자매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을 때 그 자매님은 온갖 일을 다 하셨으며 비계(집지을 때 가장 자리에 먼저 짓는 높은 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 예배당이 완성된 다음 회원들이 교대로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린자매님이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참으로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본 다음 아무도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감히 불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리이사 린 자매는 오랫동안 청녀 지도자로서 수많은 소녀의 생애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청녀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레일리 조우테너스는 지금은 탬피어 워드 감독의 부인으로서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린 자매님은 영원히 기억될 교사였습니다. 나는 이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매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며 그 자매님은 우리의 질문에 귀기울여 줄 시간을 충분히 내셨는데 그런 질문 가운데는 좀 바보스런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젊은이들을 다루실 때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한다는 요셉 스미스의 방침을 따랐습니다. 그 자매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젊은이들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자신의 올바른 원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잘못될 때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린 자매도 청녀를 맡아 일했던 것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가족 내에서 또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으며 그들은 매우 강한 간증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쿠오피오 청소년 성전 방문 여행을 조직하였으며 우리가 그 여행 때 경험했던 영적인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받은 가장 훌륭한 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 사업을 함

린 자매는 처음에는 결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지만 선교 사업이 린 자매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린 자매는 “나는 침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가입한 것은 올바른 일이야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헤이키가 옷을 갈아입고 온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물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회상하면서 웃는다.

린 자매는 지바스킬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선교사 임무를 받아 그곳에서 지방부 선교사로 두 번 봉사했다. 린 자매는 “당시에는 지바스킬라에 침례가 너무 많아서 물이 텅빈거리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안나 리이사 린의 지방부 선교사 동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커부 하리넨 자매는 그 당시에 관하여 훌륭한 추억을 많이 갖고 있다. “린 자매가 선교 사업에 있어서 나의 첫 동반자였습니다. 나 자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좀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자매의 옆에서 성장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할 충분한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구도자는 우리가 동반자가 된지 한 달도 못되어서 침례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교회 회원이 아닌 어떤 가족과 우리의 선교사 토론을 연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습’의 결과로 그 가족의 아버지가 침례받았습니다.”

1974년에 안나 리이사 린은 정년 퇴직하고 의사일을 그만 두었다. 1975년 1월에 십팔 개월의 선교 사업을 위해 사모아로 보낸 선교사로 나갔다. 린 자매는 “인생에서 그 시점까지 나는 자신이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 가운데 하나로서 군대의 출병과 비슷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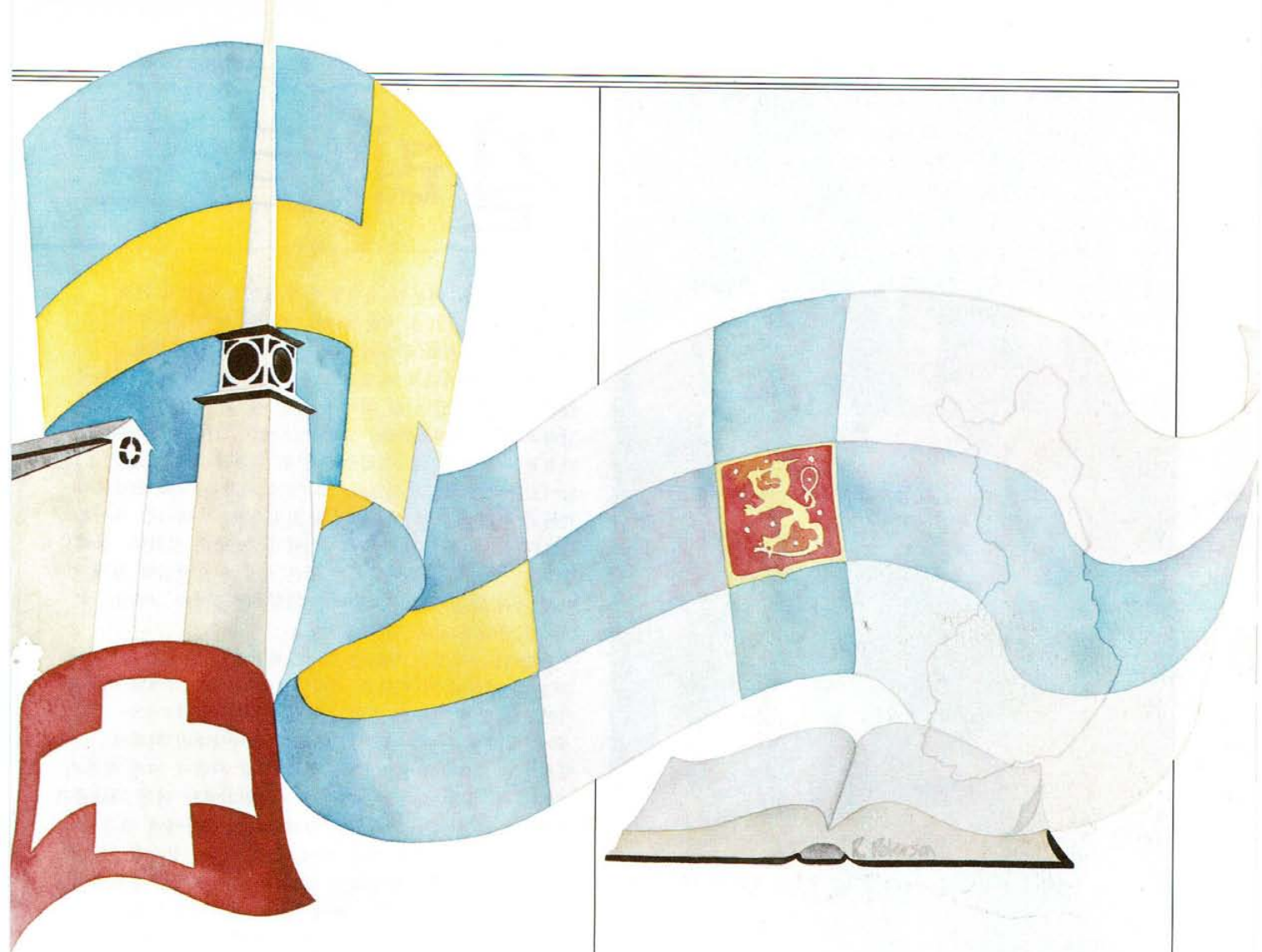
깨닫게 된 것이 그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었다.

린 자매는 사모아를 떠나기도 전에 통가에서 다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곳에서 경험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선교부장인 통가 토우타이 팔레투아를 알게 된 일로서 그는 지금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안나 리이사 린은 “그는 매일 한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신앙과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린 자매는 태평양 지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에 대하여 기적적인 간증을 많이 경험하였다. 통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말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떤 마을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십분간 말씀을 적어 둔 종이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시간 동안의 모임에서 연사가 자기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임무에 직면하여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곳에 무서워하면서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나는 한 시간 내내 말씀했습니다.”

1978년에 안나 리이사 린은 핀랜드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곧 또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1979년에 복음 선교사로서 스코틀랜드로 갔다. 린 자매는 “나에게는 젊은 동반자들밖에 없었으며 나는 그들의 훈련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임 동반자가 복음 토론을 다 외울 때까지 선임 동반자가 아침을 준비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침 식사로 핀랜드식 오트밀을 만들었으므로 이 미국 아가씨들은 선교사 토론을 매우 빨리 외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웃는다. 린 자매는 건강 때문에 11개월 후에 선교 사업을 중단했으나 이것이 그녀의 활동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혀 그 반대였다.

린 자매는 스위스 성전에서 자원 봉사자로 두 번 봉사한 다음 1982년에 성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매일 마음 속으로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는 연장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치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성전장 부인의 보좌로 부름받았다. 린 자매는 선교사 임기를 끝낸 다음에도 “성전에서 일하기 위하여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내 건강을 돌보기가 어렵지 않았다면 더 오래 일했을 것이며 얼마나 더 오래 일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안나 리이사 린은 스위스로부터 핀랜드로 돌아온 다음 성전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기도 전에 부름받았던 일 즉 핀랜드에서 교회 역사를 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일을 끝내기 전에 다시 부름이 왔는데 이번에는 스톡홀름 성전에서 일하라는 부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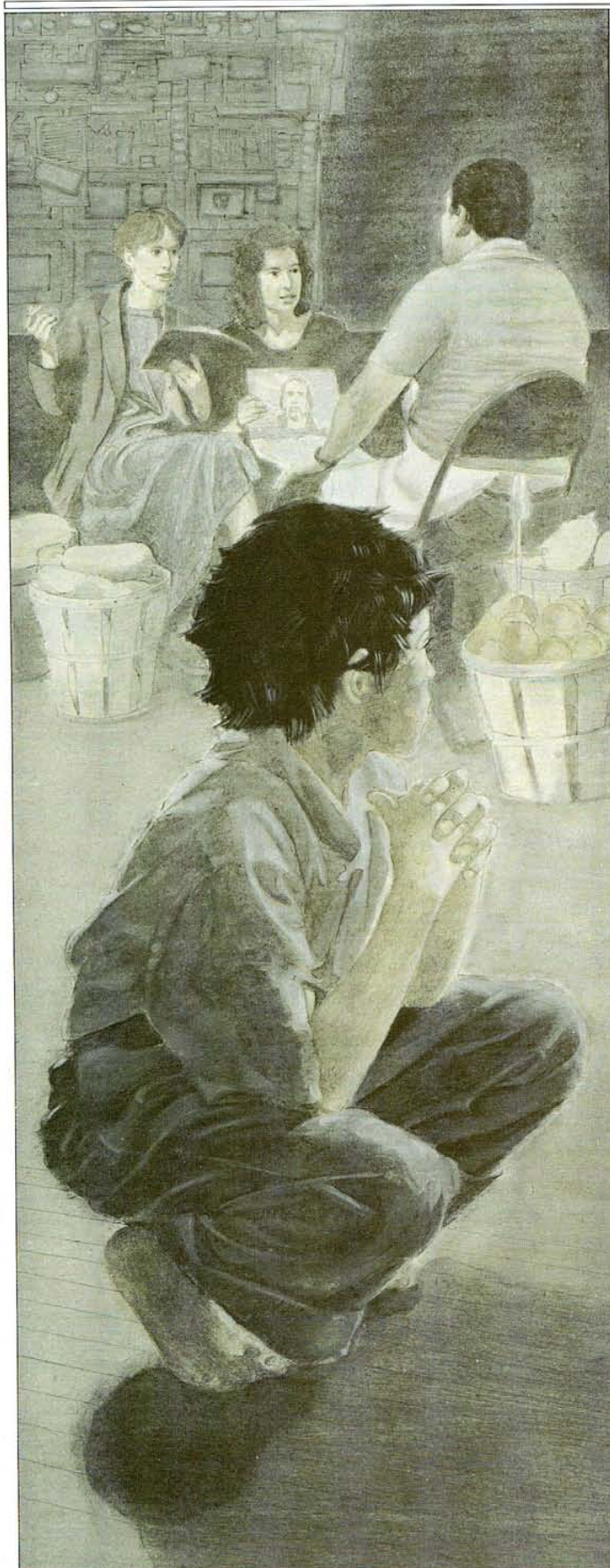
안나 리이사 린은 일한 경력이 유난히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그녀의 취미 역시 전혀 평범하지가 않았다. 이 열 여섯 손자의 할머니는 파도타기를 좋아하며 지난 여름에는 거의 모든 손자에게 파도타기를 가르쳤다. 그에게는 작은 돛배도 있으며 연안수비대 과정도 수료해서 마침내 국제 항해 허가증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계획에는 아직도 잠수

과정과 권총 사격이 들어 있다.

린 자매는 현재까지의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나 자신을 즉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린 자매의 질문에 답을 준 것은 바로 복음이다. 린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면에서 나는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보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그분에게 의지해야 했으며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보답으로 안나 리이사 린은 주님께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을 확인해왔다.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마자-리이나 키비니에미는 언론인이며 번역사이며, 댄피어 핀랜드 스테이크의 공보 책임자이다.



길레르모

길레르모의 피부가 새까만지 보통으로 검은지 약간 검은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은 그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었다. 귀 위로 헝클어져서 덩어리져 매달린 그의 검은 머리는 그의 셔츠에 칼라가 붙어 있었던 곳 위에서 칼로 한 움큼씩 아무렇게나 잘라낸 채로 남아있었다. 그의 셔츠에는 그의 여원 가슴을 가로질러 닝마조각을 묶어주는 단추 몇개를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닝마 셔츠는 그의 허리에서 찢어진 바지 속으로 쭈셔넣어져 있었으며 그 바지는 사이즈가 컸으며 끈 하나로 동여매어져 있었다. 신발은 없었다. 상의도 없었다. 그가 우리를 볼 때는 검은 눈동자가 의심에 차서 이리 저리 굴러다녔으나 우리가 말할 때 구석에 그대로 앉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다.

길레르모, 그것은 “윌리엄”을 스페인어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는 그 자신이 이 이름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레르모는 가민이었다. 이 말은 길거리의 고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불란서어이다.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길에 버렸는데 아마 그를 먹여살리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길레르모는 삼사세에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밤에는 추운 문간을 거처로 삼아 웅크리고 추운 밤안개를 막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로 붓을 덮고 지냈다.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노점 상인으로부터 사과를 훔쳐먹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이런 초라한 사치품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의 거리에는 가민이 너무나 많이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미스터리이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혹은 대부분이 살아남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에 대한 산 증거이다.

길레르모는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 열두살이 되었을 때(그의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어떤 친절한 가게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 사람은 길레르모가 그 가게 주변을 청소해 주는 대가로 뒷방에서 자게 해주고 매일 한 끼 식사를 주는 이외에 매주 약간의 급료를 지불해 주었다. 길레르모는 험한 말씨를 절대로 쓰지 않고 그 친절한 노인의 것을 도적질하여 그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착한 소년이었다. 그는 이웃의 많은 주부들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는 때때로 그 가게의 뒷문에 낡은 바지 — 낡기는 했으나 닝마가 되지는 않은 — 낡은 셔츠를

우리는 그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는 줄 몰랐다.

레논 클레스너 홀레트

그에게 입을라고 두고 간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말로 배가 고프거나 추운 일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가족이 있고 놀 시간이 있는 다른 어린이들과는 달랐다. 물론 그는 학교에 다닌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친절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관계는 항상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였다. 그리고 비록 대부분의 가민보다는 훨씬 잘 지내고 있었지만 길레르모는 외로웠으며 아주 외로웠다.

우리가 그 작은 가게의 뒷문을 두드리고 그 노인에게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할 때 길레르모가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주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함께 앉았을 때 길레르모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절대로 질문하거나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저 듣기만 했다.

그 노인은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좋아해서 다시 오라고 초대했으며 선교사 토론을 다 가르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오라고 했다. 다 가르치고 나자 그는 변화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침례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서늘한 밤에 그 가게로부터 먼지나는 길로 걸어가면서 실망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는 뒤에서 맨발로 달려오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 보았을 때 길레르모가 매우 흥분해 있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들, 제가 침례받고 싶어요.”

우리는 어안이 빙빙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해했을까? 왜 그가 침례받고 싶어했을까? 우리는 그에게 그 다음 날 만나자고 했으며 그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 두 젊은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우리 네명의 선교사는 그 더러운 거리의 소년을 둘러싸고 앉아서 그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는 구원의 계획, 침례, 지혜의 말씀 및 다른 계명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그 노인의 물문경을 빌려서 이웃 집 부인에게 가져가서 그 부인이 이틀도 안된 동안에 그 대부분을 그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을 알고 더 놀라고 또 감격했다.

그 장로들은 그가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더 시험해 보았다. 그는 그렇게 해서 매주 일요일에 또 상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밤에 교회에 왔다. 그리고 또 그는 목욕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의 옷 중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으로써 우리 모두를 다시 또 놀라게 했다. 일개월이 지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침례받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그 장로들이 지부의 추운 침례탕에서 그에게 침례주었다. 물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떠올랐으며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달려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팔로 나의 허리를 안고 크게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으며 그는 마침내 진정하고 나서 그 검은 눈으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했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나는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이해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모르시겠어요. 나는 마침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가 그날 완전히 씻겨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외로운 가민에게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준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닦고 길레르모를 환영하는 회원들과 함께 두고 떠났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문경을 읽어 준 부인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갔다.



잊혀진 성도들의 섬

이브스 페린과 캐슬린 페린



좌: 교회 회원들은 1931년에 지어진 이 작은 목조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는 우측 상단: 섬 경찰관인 카헤케 테마누 지부장은 탱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1969년에 섬으로 다시 이사왔다. 우측 하단: 이 섬의 북쪽에 있는 도시로 가는 탱가의 오솔길을 가로질러 이 길은 마치 조수에 의해 채워지고 비워지는 것처럼 뻗어 있다.

1976년 이월은 타히티 섬과 그 주변 섬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달이었다. 그 달에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대부분이 처음으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지역 대회를 하기 위하여 불령 폴리네시아로 여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몇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다른 총관리 역원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자의 방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큰 희생을 했다. 그들은 수고하며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만들었다. 회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전통적인 타케히 잔치를 준비하고 음악과 무용 프로그램 연습을 했다.

이웃 섬의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 활동을 제쳐 두고 타히티의 큰 섬까지 더러는 멀고 어려운 여행을 했다. 일부는 비행기로 갈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배로 며칠간 광활한 바다를 여행해야 했다. 대회가 있는 주가 다가왔다. 세상에서 이 지역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전에는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대회로의 항해

대회 첫 모임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오십명 이상의 단체가 타히티 파피테 선교부에 도착했다. 레이몬드 보딘 선교부장은 불령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의 성도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대회 참석에 관심이 있는 비회원 단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투아모투 군도에 위치한 작은 탱가 섬에서 온 말일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선교부장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파피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탱가에 교회 회원이 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보딘 선교부장에게 탱가의 주민은 거의 모두가 말일성도이며 탱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의 예언자를 보기 위하여 돛단배를 타고 타히티까지 삼일간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교회 회원 기록 카드가 잘 정리되어 있고 대중 교통과 즉각적인 통신 수단이 발달한 시기에 섬 전체를 “잇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그리고 탱가 사람들이 킴블 대관장의 방문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투아모투에서의 선교 사업

탱가는 산호 환초섬(평평하고 화산 폭발에 의하여 생긴 섬이 아닌 섬)으로서 타히티의 정 동쪽으로 약 2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섬은 1820년에 벨링샤우센이라고 하는 어떤 소련 선장에 의하여 나머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844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샌드위치 섬(지금의 하와이)으로 보낸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불령

폴리네시아로 알려진 섬에 오게 되었다. 이 지역은 영어를 쓰지 않는 최초의 선교부가 되었다. 처음으로 투아모투스로 간 사람은 벤자민 그로워드 장로였다. 그는 1845년 5월 1일에 탱가섬의 이웃섬인 아나아에 내렸다. 그로워드 장로는 큰 성공을 거두어 오개월에 약 620명을 침례 주고 여러 지부를 조직했다.

1845년부터 1850년까지 투아모투스에서의 말일성도 선교 사업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주로 그로워드 장로가 진행했다. 그리고 나서 이십년 동안 불란서 정부는 말일성도 선교사가 이 새로 생긴 보호령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록 개종자들은 이 기간에 교회와 아무 접촉이 없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퍼뜨렸다. 그들은 그 군도의 서쪽 지역에 있는 환초섬은 거의 모두 다 전도했으며 섬의 주민 가운데 상당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투아모탄섬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타히티에서 직장과 부를 얻기 위하여 집을 떠났다. 탱가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은 타히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가끔 접촉하였으나 그 여러 섬에서의 접촉은 없거나 굉장히 어려웠다. 불령 폴리네시아에는 110개의 섬이 있으며 현재 타히티 파피테 선교부내의 섬은 250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 지역에 퍼져 있다.

1931년에 교회가 간신히 구입한 58평 남짓한 땅에 십육평의 작은 예배당을 지었다. 이 예배당은 오늘날 이 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예배당이다. 충실한 성도들은 그들이 1976년에 항해하기 전에 선교부장이 그들을 방문한 것은 1950년대 후반에 조셉 알 리더너 선교부장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십오년 동안 선교부장들은 어떻게 하다가 탱가를

방문을 기다림

비록 그 지부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모임은 비정규적으로만 열렸지만 회원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 투루하이 부친 자매는 지금 타히티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대로 생활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나중에 지부장으로 부름받은 카헤케 테마누는 언젠가는 이 작은 섬을 선교부장이 방문하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 섬에 작은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은 이 고대하는 방문자를 모시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마련해 두었다. 그러므로 이 한결같은 회원들이 어떻게든 소문을 통하여 주님의 예언자가 타히티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킴블 대관장에게 그들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서 드릴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여행을 하도록 영감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976년 이래로 탱가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이 섬은 다른 불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상당히 고립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이웃 섬이 갖고 있는 가설 활주로도 없다. 탱가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십이인승 비행기로 가까운 마케모로 날아가서 광활한 바다 위로 모터 보트를 타고 약 세 시간 동안 여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날씨가 나쁠 때에는 이 “세 시간” 여행은 그 두배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압력과 복잡한 것이 없고 수십년 전과 별로 변한 것이 없으므로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된다. 산호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토양에는 작물이나 채소가 별로 자라지 못한다. 섬 주민들은 주로 생선과 코코넛을 먹고 가끔 타히티로부터 실어온 상품으로 보충하게 된다. 이 섬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활동은 코프라 생산이며 코프라는 코코넛 알맹이로서 이것으로 기름을 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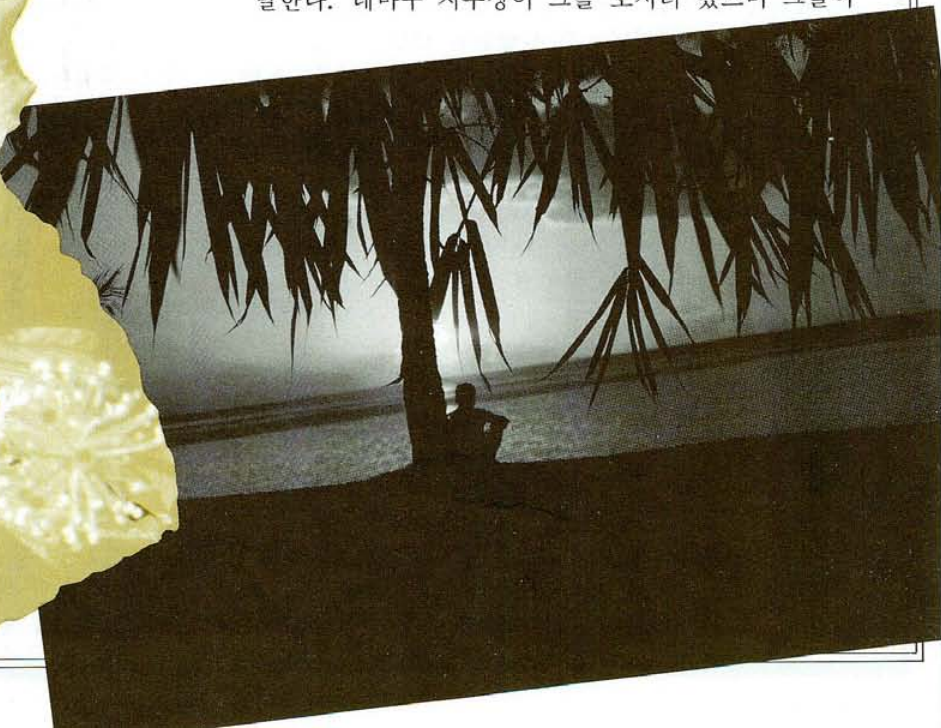
탱가에서 한 가지 변한 것은 교회 활동이다. 성도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원하는 만큼 신앙을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탱가 사람들은 1976년에 타히티로 여행한 직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교부장의 방문을 받았다. 보딘 선교부장이 섬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그 섬에 지부를 개설하고 카헤케 테마누를 지부장으로 불렀다. 테마누 지부장은 탱가에서 태어났으나 타히티로 이사했던 사람이다. 1969년에 그는 가족과 함께 다시 탱가로 돌아왔으며 불란서 정부에 의하여 현지의 경찰관으로 임명받았다.

지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기능을 시작하였을 때 회원들은 모임에 돌아 왔으며 열명의 개종자가 침례받았다. 탱가의 칠십육명의 주민 가운데 일곱명만이 교회 회원이 아니다. 테마누 지부장은 모든 교회 회원이 활동적일 뿐 아니라 비회원까지도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참여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 섬의 몇몇 부부가 1983년에 타히티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인봉받은 것을 특히 기뻐하고 있다. 신앙으로 항해함

탱가섬의 회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느낀다. 이 신앙은 그들이 마케모로 항해할 때마다 시험이 되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숙련된 항해자들이지만 탱가섬에서 처럼 이 기술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마케모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것은 평평한 산호초 섬은 멀리서는 잘 안보이며 수천 평방 킬로미터의 바다가 그 섬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침반이나 기타 항해 장비도 없이 여행하며 그 배의 항해사가 말하는 것처럼 “별과 본능과 주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믿고” 여행한다.

탱가를 방문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항해는 기억할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배의 항해사인 테마누 지부장의 신앙에 감명을 받아왔다. 그는 탱가의 환초로 둘러싸인 바다를 떠나기 전에 최고 여섯 명까지 타는 길이 삼 미터의 배에 서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도착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보딘 선교부장은 탱가로 두번째 항해한 것이 그의 선교 사업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테마누 지부장이 그를 모시러 왔으며 그들이





좌측 상단: 탕가 북쪽의 해변에 파도가 부딪친다.
 우측 상단: 탕가 상호부조의 자매와 어린이, 좌: 신권 형제 및 어린이. 좌측 하단: 투아모투 군도에서 탕가의 위치를 보여 주는 지도, 우측 하단: 사진 하단의 오솔길과 섬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를 하늘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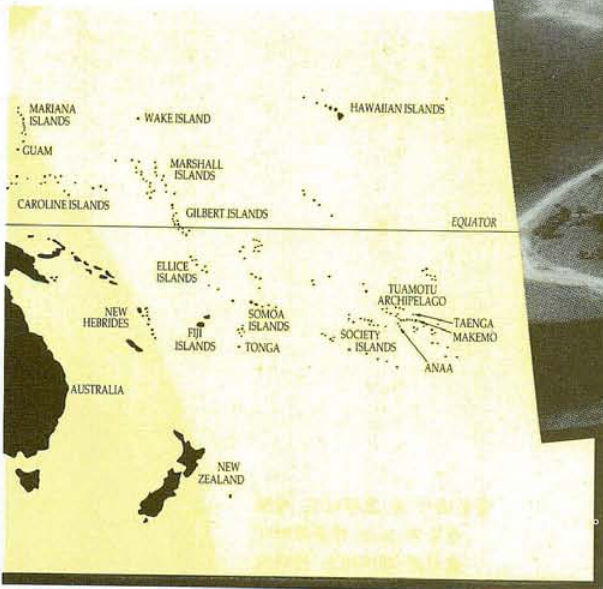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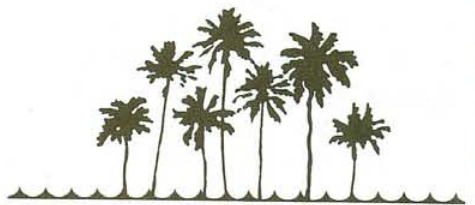


사진: 지 웨인 맥



마케모를 떠난 직후 폭풍이 와서 바람과 파도가 바다 속에서 배를 때리며 진로를 바꾸었다. 보딘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여섯 시간이 지난 후에도 땅이 안 보일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테마누 지부장이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섬이 저쪽 방향에 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조용해졌으며 마치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산호를 지나가도록 인도하려고 오기나 했던 것처럼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나타나서 배 앞에서 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라도 한듯이 옆으로 약 삼십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고래가 물을 내뿜으며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전진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누그러지고 물이 공급됨

탱가의 회원들은 하늘이 그들 섬의 자연을 부드럽게 하셨다고 믿는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다섯 번 큰 사이클론(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었으며 주변 섬들은 심한 영향을 받았으나 탱가는 이 무서운 폭풍 가운데 단 하나도 겪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탱가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 충분한 물을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지적한다. 투아모투 환초 섬에는 산이나 강이나 샘이 없기 때문에 식수는 모두 다 빗물통과 물탱크로 모아야 한다. 가문 계절에는 대부분의 섬이 계속해서 물문제로 고생하며 한 동안 엄격한 배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탱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현대 생활의 한 면에서 탱가 사람들은 타히티보다 더 높은 한 가지 생활 수준에 대하여 뽐낼 수 있다. 타히티는 아직 전기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탱가에서는 모든 집이 태양력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상의 천국

최근에 탱가를 방문한 타히티에서 온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섬에서의 커다란 안정감과 전체 주민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압도적인 영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 교회의 지역 실무 책임자인 조지스 보네트는 “이곳이야말로 천국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보네트 형제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가 일어나서 밖을 보았을 때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밤 사이에 마을 길에 떨어진 나뭇잎을 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깨끗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흙 하나 없었으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섬에 대하여 큰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타히티에서 보딘 선교부장의 후임이 된 시 웨인 맥크 부장과 시 제이 라슨 부장도 역시 이 섬에 대하여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 다 처음에 선교 사업을 할 때 탱가에서 봉사했다. 라슨 선교부장은 1984년 7월에 타히티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탱가는 언제나 어찌면 그 선교부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단합된 지부일지 모른다는 인상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삼십사년 전에 선교사로서 그 섬에서 봉사할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브스 페린은 대체사 그룹 지도자이며 캐더린 페린은 샌디 유타 카튼우드 크리크 스테이크의 유니온 삼십일 와드의 초동협회 회장단 보좌이다.

일본에서 온 요꾸니도 사토 장로와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데이비드 개터즈 장로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본부에서 봉사한다.

“왜 솔트레이크시티에 몰몬이 또 필요할까?”



재닛 피터슨

구라파, 아시아, 남미에서 온
젊은이들이 유타주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요 꾸니도 사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조국인 일본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했다. 가이아나의 라몬 라모스도 남미에서 선교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장로나 라모스 장로 두 사람 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다가시 와다 장로는 자신의 선교사 지명 편지를 여덟 번이나 읽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솔트레이크시티 북 선교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의 린다메이 가르시아 자매는 부름받았을 때 “왜 솔트레이크시티에 몰몬이 또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교회는 교회 역사를 통털어 늘 선교사들을 교회 본부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러 보냈다. 스페인의 헤수스 라몬과 캐나다 퀘백의 마리 노르망과 기타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젊은이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가 있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선교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 계곡에는 두 선교부의 본부가 있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북 선교부는 유타주로부터 아이다호주 및 와이오밍주까지 북쪽으로 뻗어 있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는 계곡 가운데로부터 유타주 남쪽 경계까지 뻗어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피터슨

전 세계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띄고 있는 곳은 북 선교부이다. 알래스카로부터 온 로이드 브이 오웬 솔트레이크 북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바로 솔트레이크시티 이 안에 국제 선교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사모아, 통가, 영국, 아일랜드, 남아연방 공화국,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부에는 무려 삼십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부는 언제든지 약 십칠개국어로 복음을 가르칠 능력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가 전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을 좀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동반자로 봉사하고 있는 북미주 출신의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페기 오웬 자매는 말한다. 또 국제 선교사들은 영어를 더 잘 배우고 그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안고 있는 선교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모두 이 선교부내의 같은 존(구역), 제 8 존(구역)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부장은 선교사들의 언어 능력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웬 선교부장에 의하면 이 방식은 효과가 있다. “제 8 존(구역)은 침례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부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존(구역)입니다.

솔트레이크 북 선교부와 솔트레이크 남 선교부는 교회에서 영어를 말하는 선교부 가운데서는 침례를 가장 많이 주는 선교부에 속한다. 남 선교부의 밴 엘 맥카베 선교부장은 이것은 수많은 회원들의 우정 증진 노력과 와드 및 스테이크의 선교 사업 열의가 있는 지도자들과 특히 헌신적인 복음 선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개종자 선교사

수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비교적 최근에 침례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부름받기 전에 몇 년 동안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다.

요꾸니도 사또 장로는 육년 전에 일본 사뵘로에 있는 그의 고향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전에는 불교 신자였으며 그의 가족 가운데 그만이 말일성도이다. 그는 “김볼 대관장님이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신앙이” 생겼다고 말한다. 사또 장로는 학교에서 영어를 좀 배웠으며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교회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영어로도 가르치고 일본어로도 가르친다.

그의 동반자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파인 블라프 출신인 데이비드 개더즈 장로는 외국어를 말하는 선교사로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하여 선교사 훈련원에 다닌 적은 없으나 사또 장로로부터 일본어를 너무나 잘 배워서 지금은 복음 토론을 일본어로 가르칠 수 있다.

사또 장로와 개더즈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스퀘어에서 일하도록 지명받았으며 그곳에는 솔트레이크 성전, 태버나클, 집회소 및 두 개의 교회 방문자 센터가 있다. 템플스퀘어는 조경이 아름다우며



매년 약 이백만명의 관광객이 모인다. 그런 방문객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에서 온 스물한 살의 지토미 다나카로서 그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유타주로 온 사람이다. 이 장로들은 그녀에게 템플스퀘어를 안내해 준 다음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으냐고 물었다. 지토미는 물론경을 읽고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저하고 있었다. 장로들이 그에게 침례받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날짜를 잡았으나 지토미는 그 날이 오면 또 그 다음 침례 약속 날짜가 오면 침례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오개월 동안 복음을 공부한 다음 마침내 침례받았다. 그 이후로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사또 장로의 보고에 하면 그녀는 이제 충실한 교회 회원이다.

사또 장로와 개더즈 장로는 어떤 월남 여성과 그녀의 딸을 가르칠 기회도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도 비슷하게 여러 언어가 개입된 경험을 했다. 마리 노르망 자매는 캐나다에서 불어를 쓰는 케백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다음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선교사 훈련원으로 가서 영어를 배웠다. 그녀는 선교부에서 캄보디아 피난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역시 캐나다 사람인 재니스 라이더 자매의 동반자가 되었다. 영어를 배운 이 불어를 말하는 선교사는 지금은 캄보디아어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캄보디아 개종 이야기

약 8,000명의 동남 아시아 피난민이 유타주에 살고 있으며 매달 약 오십 내지 백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도착하고 있다. 도널드 및 아이어런 존스는 캄보디아 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아리조나주 메사 출신의 부부 복지 선교사이다. 존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의복, 가구, 음식, 직업 훈련 등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삼십 퍼센트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다 보면 자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문이 열립니다.”

캄보디아에서 학교 교사였던 사칸 레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개종 이야기이다. 그 나라 정부가 붕괴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흩어졌으며 그녀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두번이나 총살대 앞에 섰으나 생명을 건졌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탈출했으며 이미 태국으로 피신한 그녀의 자녀를 찾을 수 있었다. 유타주에 사는 어떤 말일성도 캄보디아 가족이 레이 가족의 후견인이 되어주어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로 올 수 있었다. 그들은 그때 이후로 교회에 입교했으며 레이 자매는 지금 자기 동포를 위한 사회 사업가로 일하고 있다.

월남 출신으로 솔트레이크 북 선교부에서 일하는 두 명의 선교사가 스페인 계통의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구도자에게 영어로 복음 토론을 가르쳤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 출신의 제프 레이즈 장로는 프로 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타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였다. 무릎 부상으로 인하여 122킬로그램의 체중의 미식 축구 선수로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게 된 그는 교회에 대하여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시로 돌아왔다. 어쨌든 이 사람이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였으며 침례를 받게 되었다. 오웬 선교부장은 그 경위를 이렇게 회상한다.

사모아 태생, 테레사 모(가운데) 자매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선교사 부름을 받아 일생의 꿈이 실현되었다.

그의 고국 스페인으로 선교사 부름받기를 희망한 지자스 레온 장로(왼쪽에서 두번째)는 유타로 선교사 부름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다.

구아나의 제화공인 라몬 라모스(가운데)는 웨스트 인디아로 사업차 여행을 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다.

유타 노스 지역 회장단 회장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제임즈 엠 패리모어 장로는 지역 대회에서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르치는 요점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교사 대회에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 로이드 브이 오웬 솔트레이크 북 선교부장은 많은 선교사들이 유타에 부름받는 것에 관해 불신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 리즈 출신의 소나클렌스 자매가 선교사 대회에서 노래를 지휘하고 있다.



사진: 제드 콜라크, 피터 브라운

“제프는 침례받은 다음 너무나 기뻐서 그 작은 월남 선교사들을 꼭 끌어 안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들의 다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 선교사들의 생명이 걱정이 된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다”

미국 밖에 사는 사람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느낄까? 오웬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둥절해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교 사업 부름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원래 사모아 출신으로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과부인 테레사 모우 자매는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그녀가 통가나 사모아나 기타 어떤 태평양 섬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소녀때에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을 본 이래로 늘 유타주에 가는 것에 대하여 꿈꾸어 왔다. 그녀는 자신이 솔트레이크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그녀의 느낌이 옳았다.

텍사스주 멜세데스의 린다메이 갈시아 자매는 1984년 교회에 들어 왔으며 유타주에 선교부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러나 스페인의 엘세 출신인 헤수스 라몬 장로는 그의 식구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유타주로 가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고 올랐습니다. 나는 스페인에 있는 나의 동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또 우리 가족과 좀더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으며 그 부름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온 부름이며 유타주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 부름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저는 우리 가족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개선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생활에서 일어난 훌륭한 변화를 보았고 교회 회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몬 장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제팔 지구에 사는 멕시코인이나 남미 사람들과 일차 전도 접촉을 가질 때가 많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서반아어를 사용하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온 산티아고 티논 장로와 텍사스주 엘 파소의 알레잔드로 플로레스 장로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처음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로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두 장로는 지금은 멕시코, 과테말라,

베네주엘라, 엘살바도르에서 온 서반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봉사하고 있다. 이 선교사팀은 단 한 달만에 여섯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중 한 사람은 유타주 프로보로 유학 온 젊은 멕시코 여성이었다. 그녀는 대단한 직연가였으나 몰몬경을 읽으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세번째 토론을 할 무렵에는 개종된 상태였고 기꺼이 담배를 끊었다. 플로레스 장로는 그녀가 바로 스페인어 계통의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좋은 예라고 말한다.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온 구두공인 라몬 라모스는 자신이 만든 수제화를 관광객에게 팔기 위하여 서인도 제도에 있는 바베이도스 섬으로 갔다. 그는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곧 이어 스물한 살 때 교회에 입교했다. 그는 자기 식구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으나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 지 몰랐다. 바베이도스로 여러 번 여행하던 중 한번은 아리조나에서 온 어떤 말일성도 가족을 만났으며 그들이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라모스 장로는 선교 사업을 끝내고 나면 바베이도스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울 계획이다. 그는 “그곳에서 신권 소유자들이 극히 적으며 저는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필요로 하신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오웬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이점의 하나는 이들이 그들을 내일의 지도자로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막강하다는 것을 목격하며 스테이크와 와드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훈련된 지도자를 찾는 것이 몹시 어려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특별하게 준비된 인재들일 것입니다.

선교사 경험 중 선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준비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알레잔드로 플로레스 장로는 그의 선교 사업이 인생에 관하여 많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인도 제도로부터 잉글랜드의 리즈로 이주하고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대가족 출신의 쏘나 콜린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이 침례를 주는 일로만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자신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다 더 확실한 간증을 얻으면 성공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요한계시록 14:6) 복음을 전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솔트레이크 북 선교부 및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국제 선교사들은 교회 본부의 산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독특하고 신성한 기회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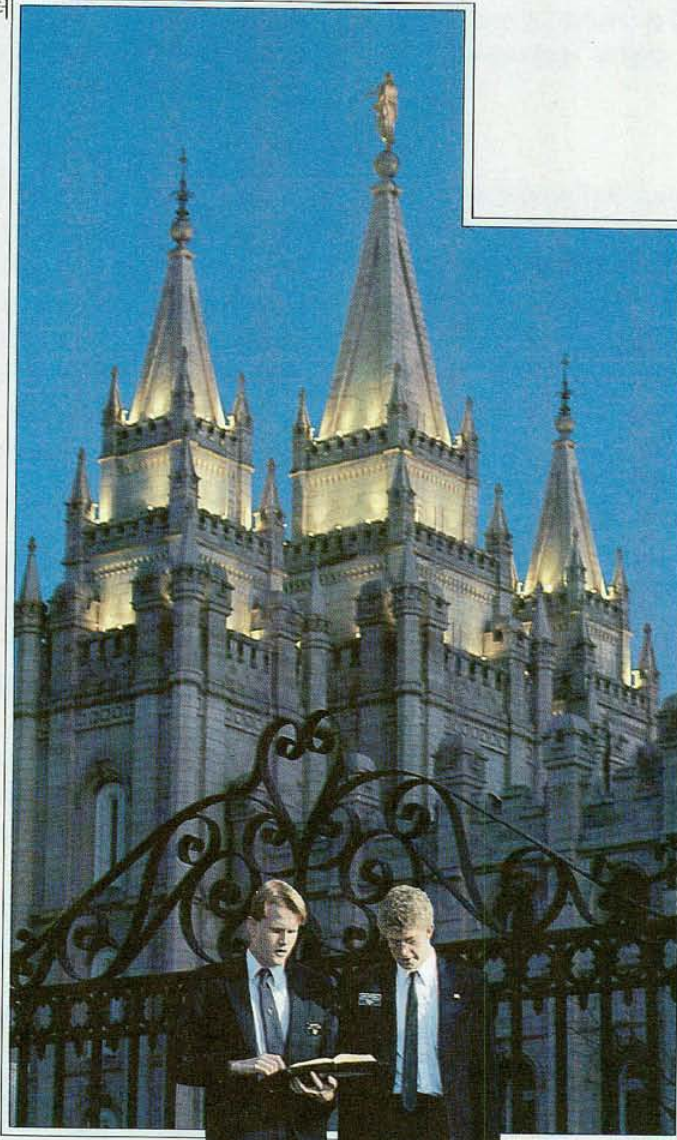
영감에 따라 부름받음

구과과, 아시아, 남미로부터
유타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는 어떤
기회를 갖습니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선교사과 관리
책임자인 찰즈 디디어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솔트레이크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를 부르는 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임무를 지명하는
일은 예언사, 선견자,
계시자들이 행하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영감에 따라서
부름받습니다.”

영감에 의하여
솔트레이크에 있는 영어를
쓰는 선교부에 가서
봉사하도록 지명받게 되면 그
장로나 자매 선교사는 우선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가게 된다. 그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 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예비
교육 과정을 받거나 영어를
제외 외국어로 하여 팔 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더 강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대관장들은 성도들과 크게는
전 세계 사람에게 보다 더 강한 가족을 일으켜
세우도록 촉구해 왔다. 여기 주님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저들의 자녀는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 : 25~28)

브리감 영 대관장 :

“자녀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서
키우십시오. 그들의 성향과 성격을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 대하며 결코 감정에 치우쳐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거룩한 종교의 원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익혀 그들이 성장했을 때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잊지 않도록 자녀를 보살피고 기르도록
하십시오” (설교집, 19 : 221)

존 테일러 대관장 :

“여러분의 자녀가 지적이고 근면하게 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우선 건강한 육체의 가치와 그 육체를
건전하고 활력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덕과 순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또 그들이 부여받은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상과 그 특성과 그것을 다스리는 법칙에 관하여서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지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관하여 또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 위에 두신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집,
24 : 167)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 :

“나는 오랫동안 악마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썩기를
막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성도의 자녀의
마음에 그들이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
타락한 생각을 불어넣고 심으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한다면 이 백성의 아들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과 이름이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설교집, 8 : 271)

가족을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

“시온의 어떤 가족에서든지 단합을 이루려면 즉 가족
내에 존재해야 하는 하늘의 단합을 이루려면 그 가족을



사진 : 그랜드 히든

일으켜 세움

하나로 결속시켜야 하며 가장에게 주님의 영이 있어야 하며 또 가장이 일상 생활과 개인의 행위에서 빛과 예지를 지켜 생활한다면 그것들이 그 가족의 구원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이 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설교집, 4 : 243)

“여성들은 자기들에게 남편을 축복하는 것에 관련된 큰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가슴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노력하시며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설교집, 5 : 326)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고 안식일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을 집회로 데려오고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녀에게 주일이 명절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놔두고 그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휘하에 있으며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십시오.”(설교집, 14 : 286)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

“나는 여러분의 모범으로 인하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복음 표준,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2년, 156페이지)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 :

“자,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영생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며 문자 그대로 특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굳게 견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고난의 시기에 그분에게 갈 수 있으며 그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계를 따른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한 큰 행복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8년 10월 연차 대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

“하나님과 미래의 인류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단합된 가족의 초라한 오두막집이 다른 어떤 부 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4년 4월호)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전합니다. 가정은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전에서 행하는 인봉 의식이며 우리는 해의 영광의 결혼식을 가지면서 나는 성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1972년 4월 대회 보고,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72년 12월호, 8페이지)

해롤드 비 리 대관장 :

“가장으로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여러분의 주위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정의 힘과 결속이 요구되는 때입니다.”(성도의 빛, 1973년 12월호, 34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

“가족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족보다 더 건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부도 강한 가족없이 오래 존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악한 영향력이 가정을 위협하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 중 많은 것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잡지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서적을 통하여 직접 가정으로 들어 옵니다.”(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69페이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영생은 단지 율법과 복음의 의식에 순종하므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구원의 의식을 좇고 성전 결혼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모범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모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교리와 성약 88 : 119)을 갖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90페이지)

그리스도만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수

있음(힐라만서 3:28)





사진 : 마이클 맥동키

의 가운데 함께 함

아테스 지 캡 본부 청녀 회장

청남 청녀는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신권의 권세에 의하여 하나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청 남과 마찬가지로 청녀도 아론 신권의 회복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권의 권세를 의롭게 행사하면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그리고 가족을 하나로 뭉쳐줍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마련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계획으로서

우리는 모두 그 계획 안에서 한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역사하는 아버지의 계획에 포함된 완전한 축복을 인식하기 위하여 모든 청남 청녀는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 여러분의 영향력과 타고난 소질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의 신권의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침례 성약

여러분이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침례는 여러분이 성약을 맺은 맨 처음 신권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위에서 출발할 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 강에서 침례드릴 때 행사했던 것과 똑같은 권세의 권능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침례 다음에는 성신의 은사가 뒤따르며 이것은 복음 의식에 있어서 그 다음의 필수적인 의식을 구성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지닌 사람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놓였으며 그 권세에 의하여 “성신을 받는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영감을 주고 구세주의 실재하심과 회복된 복음의 참됨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성신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권의 축복 및 권세 또한 성신의 은사와 관련해서 받았거나 받게 될 또 다른 경험에 대하여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원희나 반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지닌 사람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성별 받았거나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성별받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이 놓이게 될 때 자신이 부름받은 그 직분에 있어서 행할 권세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한 젊은 월계반 반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열일곱명의 소녀가 있는 반의 반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제가 그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책임이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이 저에게 보좌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여쭈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주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열일곱 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삼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은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감독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름에 관하여

영감을 구할 때 이 자매나 여러분이나 성신의 권세를 인식하고 증거하기에 합당합니다.

성신의 권세와 그 회복 및 축복의 중요성은 내가 열 다섯살 되었을 때 내 생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귀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염증으로 인하여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의사 헌분이 내 귀의 손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청각과 균형 감각을 영원히 잃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신권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나의 부친과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병자에게 기름붓기 위하여 신권으로 헌납한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성신의 영감을 받아 내 이름을 성전의 기도 명단에 올렸으며 성전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로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기도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신앙과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나는 완전히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이때까지 받은 병자의 축복과 다른 축복에서 신권의 권세를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필요한 때에—새 학년이 시작될 때나 낙담할 때 또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혹은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기야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가정 복음 교사나 감독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도록 성임받은 특별한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은 그 동안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때로는 어려운 결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연령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또 다른 독특한 신권 축복인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 특별한 부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받은 축복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요청과 합당성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합당성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으로서 여러분에게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축복사 축복문을 수백번씩 읽어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특히 내 마음에 문제나 시련이 짓누르고 있을 때 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성한 의식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또 다른 훌륭한 신권 의식은

구세주께서 그의 지상의 성역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구세주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는 동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 이름을 믿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니라’(마태복음 26:26~28.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요셉 스미스가 보충하고 수정한 것임.)

매주 일요일 아론 신권 청남이 거룩한 성찬 의식을 준비하고 집행합니다. 거룩한 상징물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아론 신권 소유자의 의무이지만 합당한 회원은 누구나 이 신권 의식에서 약속한 축복에 참여하고 받을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권 권능에 의하여 청남과 청녀는 모두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로서 봉사할 부름을 받을 때에는 진리의 사자가 되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받습니다.

의로운 여성이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소명입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신권의 권세와 권능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성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엔다우먼트를 받고 약속과 축복이 수반되는 거룩한 신권 성약을 맺습니다. 모든 의로운 청년과 청녀는 언젠가는 만일 이 생애에서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에 대한 특권과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권 축복은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 위에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 신권 의식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승영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남자와 여자는 신권 축복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며 신권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가 받는 축복을 다시 헤아리며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영원에 대하여 준비시켜주는 권세입니다.

청녀의 부름

우리는 아론 신권 청남의 의무와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여성이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세주의 재림에 앞서 혼란한 세상에서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소명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49페이지)

여러분은 연령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미있는 부름이 있습니다. 의로운 여성이 되라는 자신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청녀는 누구나 악마의 권세를 뒤집고 음란물이 퍼지는 것을 막으며 부도덕에 대항하여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영향력은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랑과 화목의 차원, 복음을 외치는 젊은이의 숫자, 친구의 품행, 여러분의 교실의 분위기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킴볼 대관장님이 한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태평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발휘했을 것 보다 열배나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준비에 있어서 청녀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앙, 거룩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등의 가치관이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품성을 상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거룩한 임무와 관련하여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성실 등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간구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소망이 강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 내부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의로운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게 만들 도덕적인 용기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9)

청녀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함

관련되는 참조 성구와 함께 청녀의 가치관을 연구하십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 성구에 담겨 있는 복음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십시오. 청녀의 가치관을 매일 생활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의 영이 여러분의 내부에서 놀라운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 되는 것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에베소서 5:8~9 참조)

친애하는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점점 암흑이 커지는 세상에서의 빛입니다. 그러나 악마가 빛을 없애려고 그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 구세주의 말씀은 사랑스럽게 “너희의 빛을 들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니삼 18:24)

여러분이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리와 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은 성장하여 주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 의로운 청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아론 신권
소유자의 의무이지만 합당한 회원은 누구나 이
의식이 약속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성찬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남에게 대열에 합세하도록 외칩니다.

젊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본부 청남 회장

교회의 청남에게 나는 “전투 소집”을 받고 싶습니다.

니훤이 군대의 총사령관인 모로나이(엘마서 46:11 참조)가 “그의 옷을 찢어 그 조각 위에 우리의 하나님과 종교와 자유와 평화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라 쓰고 장대 끝에 매단 다음,

“투구와 가슴판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갖추고서, 옷을 찢어 매단 장대를 들고(그가 이를 자유의 깃발이라 하였음) 땅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자유의 축복이 그의 모든 동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더라...

“...모로나이가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그의 옷을 찢어 만든 깃발을 높이 흔들며 그 위에 적힌 것들이 보이도록 하며 큰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기를,

“보라 이 깃발을 이 땅에 세워 두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주님의 힘을 입어 앞에 나아가 우리의 권리와 종교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자”(엘마서 46:12~13, 19~20)

오늘날 우리는 사랑하는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침은 소집의 외침입니다.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악의 권세와 싸움

여러분을 위한 기치가 올려졌습니다. 나팔이 분명하고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전투 대열이 그어졌습니다. 루시퍼의 군대가 악과 사탄의 대열 속에서 모였읍니다. 그들의 전쟁의 외침은 무섭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파괴와 죄와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이며 지상과 지옥의 모든 악한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여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들을 보내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의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내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맑게 하며 그 기는 만국 백성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교성 105:31)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엘 30:8)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총사령관은 이 교회의 대관장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왕국에서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장군과 대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이해와 진리와 온전한 정신을 갖춘 분들이며 성실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며 주님의 대업을 위하여 싸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의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청남 여러분에게 이 대열에 합세하도록 외칩니다. 어린 다윗이 “어찌 이유(명분)가 없으리이까”(사무엘상 17:29)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의 대업이 있으며 그것은 설명할 수 없으리만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평화, 자비, 순수, 순종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서 나아가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1도의 빛 1987/2월호

여러분을 위한 기치가 올려졌습니다. 나팔이 분명하고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전투 대열이 그어졌습니다. 루시퍼의 군대가 악과 사탄의
대열 속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청남에게 대열에 합세하도록
외칩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NO PARKING ANYTIME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거룩하지 못한 손이 주님의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깨우고 모든 지방을 방문하고 모든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검고 악하고 혐오감이 생기는 복장을 한 악한 군대와는 대조적으로 시온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시기입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아름답고 달같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깨끗하게 순화시키십시오.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십시오. 게으르기를 그치십시오. 일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지혜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욕욕에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활을 바로 잡으십시오. 음악, 춤, 복장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반항적인 요소(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또 그가 적을 다루시는 전략을 배우십시오. 매일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은밀히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뢰심을 갖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대열이 커지게 함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열이 커지게 합니다. 아직 응모하지 않은 사람들, 속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 영이 부상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악한 자에게 피임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열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군대로,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명분보다 더 큰 명분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대열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최후의 힘까지 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개발하도록 결심합니다.

그들을 찾아 나갑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등학교 회장에게 금년에 소년소녀들을 활동화시키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모든 집사 정원회, 교사 정원회, 제사 정원회가 금년에 최소한도 한 사람의 정원회 회원을 활동화시키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세사를 장모식에 성임합니다.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청녀 대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전략은 아론 신권 대열에 현대의 하나님의 군대를 이십오만 이상이나 더 증원시켜 줄 것입니다. 또 삼년 이내에 우리에게는 50,000명의 선교사가 생길 것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우리에게는 연단하는 자의 불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청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극기심, 훈육, 자제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운동 선수가 경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몇 가지 규칙과 규율을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과 축복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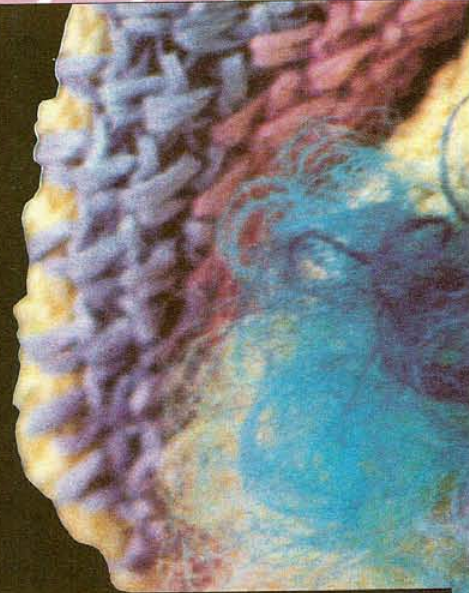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오십시오. 일어나서 해처럼 아름답고 달처럼 맑게 비칩시다. 주님의 군대가 매우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계 역사상 알려진 적이 한번도 없는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굉장한 명예를 안고 자유의 기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커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이 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는 달디달 것입니다. 우리는 쇠막대를 잡을 것이며 생명 나무의 열매를 취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멀리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는 쿵쿵 울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전쟁의 함성을 외치고 그들의 대열에 합세하십시오.

우리는 요셉 스미스와 함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손이 이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심하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모략과 중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담대히 나아가 모든 대륙에 들어가고 모든 나라에 퍼져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려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룩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광대 아저씨가 좋아요

봉사에 관한 한 이 젊은이들은 그냥
광대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멜빈 레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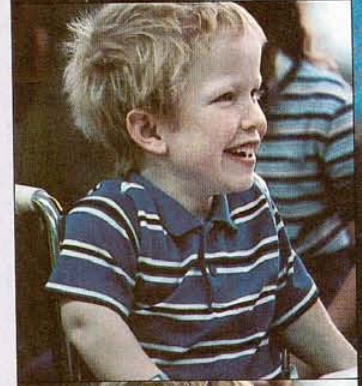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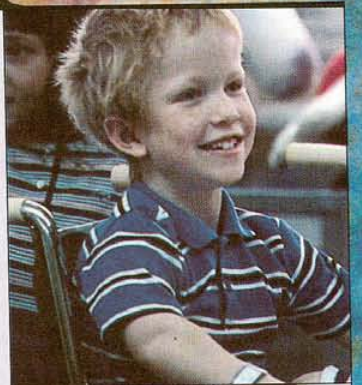
볼 구 아동 병원의 큰 교실은 어린이와 웃음 소리와
무지개 색의 가발과 큰 미소를 띤 광대들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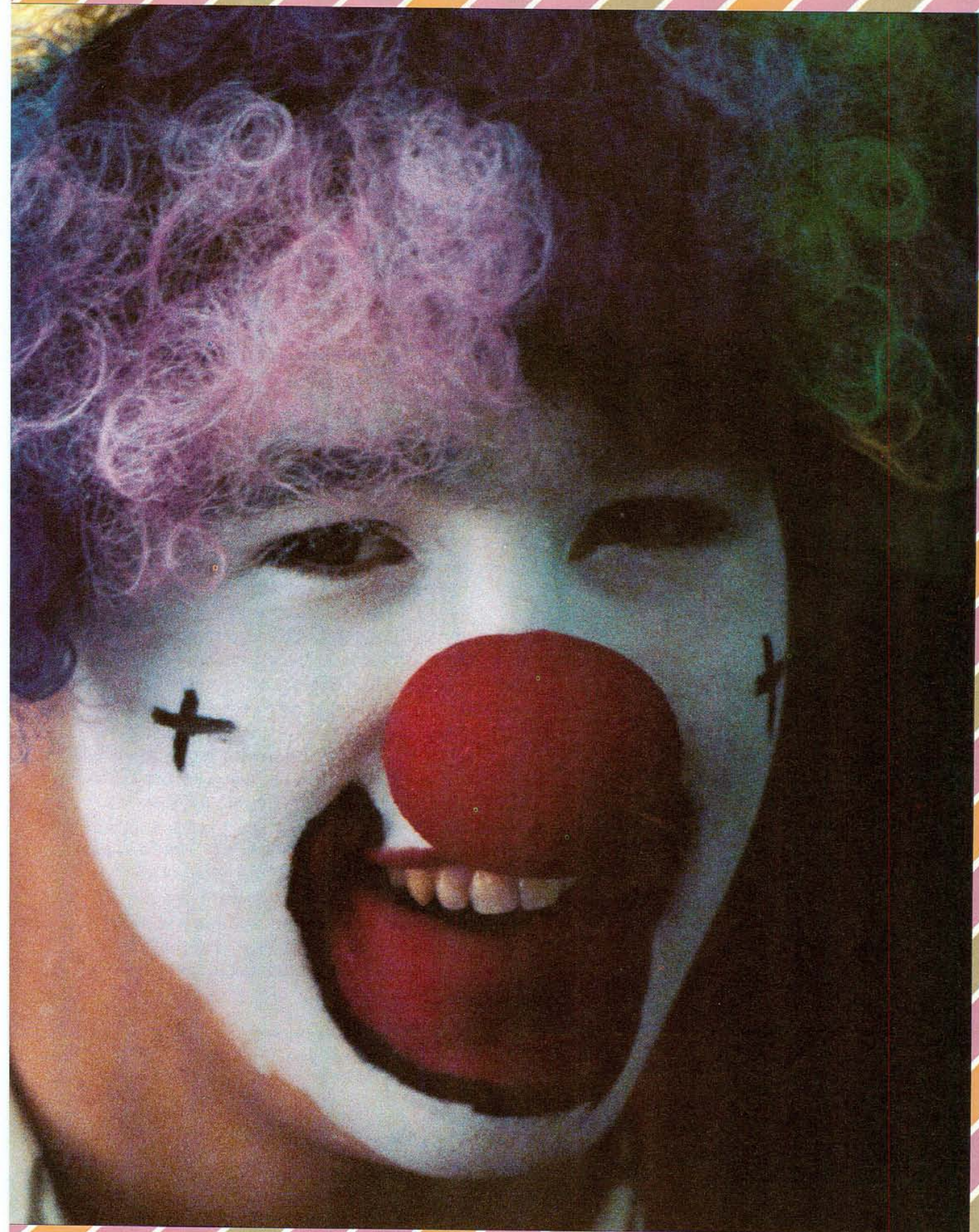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이미 풍선 터뜨리기와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한껏 웃고 소리쳤다. 이제 광대 볼링 시간이다. 광대들이
볼링 핀이다. 간호원 한 사람이 볼링 공을 굴릴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광대들을 향하여 큰 볼링 공을 올바르게
굴렸다. 그러나 광대들이 뛰어 오르거나 몸을 틀어서 비켰기
때문에 결코 광대들에게 맞지 않았다.

이제 한 어린 소녀의 차례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서 힘껏
광대들을 향하여 공을 굴리지만 그 공은 그녀의 무릎을 떠나
힘없이 굴러가며 사람으로 된 볼링 핀에 간신히 닿는다. 그
어린 소녀는 광대의 마술을 과소평가하며 한숨을 쉰다. 그
공이 맨 앞의 광대에게 가볍게 닿는 순간 그 광대는 마치
트럭이라도 부딪친 것처럼 뒤로 굴러 넘어지며 두번째 광대를
쓰러뜨리고 그 두번째 광대는 또 세번째 광대를 넘어뜨린다.
그 광대 전체가 마치 수류탄처럼 폭발하고 격퇴당하여
산산조각으로 흩어진다. 어린이들이 기뻐한다. 광대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어린이들이 이긴다.

그들이 슬픔과 눈물을 치료함

이 야단스러운 광대들이 있는 한 언제나 희한한 일이
계속된다. 이들은 콜빌 워싱턴 스테이크 리버사이드 워드의
207 탐험대 젊은이들이다. 만일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면
이 젊은이들은 의사이다. 그들은 미소로 슬픔을 치료할 수
있고 웃음으로 눈물을 치료할 수 있다. 그들이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한 동안 수술이나 피하 주사 바늘이나 아픈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그들의 광대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한다.

지금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의 공연이 끝나면 이 광대들이 환자들 사이로 다니면서 풍선으로 개, 고양이, 칼, 기린, 비행기 등의 동물과 물건을 만든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도하며 실패하더라도 흥미진진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어린이들의 얼굴에 광대 별을 그려주기도 한다.

즐거운 시간은 언제나 너무 빨리 끝난다. 환자들과 함께 웃고 환호하던 간호원들이 치료를 위해서 환자를 데려가기 시작한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작별 시간을 오래 끄는 등 시간을 끄는 책략을 만들어낸다. 어떤 어린 소녀는 광대를 꼭 끌어안고는 그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광대 아저씨가 좋아요”라고 말한다. 마침내 작별 인사가 모두 끝난다. 어린이들은 마치 특별한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듯한 느낌을 안고 그들의 방으로 돌아 간다.

광대들은 아직도 그들이 베푼 활동의 정신에 취해 있다. 그래서 병원을 나와 두대의 차에 올라 타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서도 여전히 광대 복장을 하고 우스꽝스런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두대의 차에 광대들이 가득 타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한 듯이 멍청히 입을 벌린채 바라본다.

광대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병원에서 공연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런 방문을 많이 해 왔다.

207광대 부대는 와드 젊은이들이 병원 방문을 계획할 때 시작되었다. 탐험대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차례에 광대 쇼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고문인 론 부카난이 전문적인 광대인 이웃집의 하워드 프레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단원들은 하워드의 도움으로 공연을 준비하여 병원에서 발표했다. 부카난 형제(그도 역시 “클래시 광대”로 알려져 있다)는 이렇게 회고한다. “이 활동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 어린 환자들은 사회 활동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인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는 변화되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는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17)는 베냐민 왕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대 노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가지고 봉사할 것입니다.”



광대가 된다는 것의 의미

곧 훈련 기간이 뒤따랐는데 그동안 그들은 광대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은 자기 얼굴과 의상을 고안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입고 분장하는 것을 배우는 데 몇 시간씩 소비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코메디를 연습하고 길고 가는 풍선을 꼬아서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병원, 고아원과 기타 방문해야 할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어린이의 생활을 축하하는 데 그들의 재능을 활용했다. 이 청남 회원들은 모두 각자 특별한 재능을 개발했다. “환쟁이”(도널드 앤더슨)는 땅으로 넘어지다가 지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밖에 안되었을 때 멈추는 기술을 갖고 있다. “게스퍼”(칼 왓츠)는 부대의 대변인이 되었다. “웃음보”(아론 그리피스)는 멋진 찰리 채플린 걸음을 개발했다.

한편 하워드(“실수쟁이”로도 알려져 있다)는 그들이 광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광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자기 얼굴에 칠을 하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의상을 입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광대는 분장하고 의상을 입을 때는 자신이 지녀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특성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 훌륭한 전문적인 광대는 의상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담배나 술을 하지 않으며 저속한 말은 일체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어린이가 흑인이거나, 녹색이거나, 황색인이거나, 자주색이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을 모두 똑같이 대한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인상을 그르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걸어서 발로 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그가 광대이기 때문이다.”

이 광대들의 명성이 퍼져감에 따라 이 와드의 어린 소년들은 그들이 탐험대에 들어갈 수 있는 16번째 생일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토니 로미쉬와 브라이언 맥킨티가 그 연령이 되었을 때 이미 그들에게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토니는 “땅꾼”이 되었고 브라이언은 “웃기는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열심히 연습하여서 곧 숙달된 광대가 되었다.

이 소년들은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늘 하는 것을 연습하여 더 잘하도록 하였다. 이곳에는 동지애와 화기와 사랑이 있으나 동시에 업무를 처리한다는 진지함도 있었다. 이 청남 회원들은 그들의 광대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한다. 지금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하워드 론은 언제나 이 탐험대원에게 그들이 광대 복장과 분장을 할 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주저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광대로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광대 의상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개성은 이미 없어지는 것이다. 너는 네가 아니고 광대이다.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탐험대원들은 곧 자신이 광대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으로서도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널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광대로서 연기할 때는 더 이상 도널드 앤더슨이 아닙니다. 나는 ‘환쟁이’입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나는 ‘환쟁이’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쟁이’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며 또 도널드 앤더슨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물론 ‘환쟁이’의 모든 훌륭한 자질은 사실은 도널드 자신인 것이다. 그런 것은 단지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할 좋은 구실을 기다리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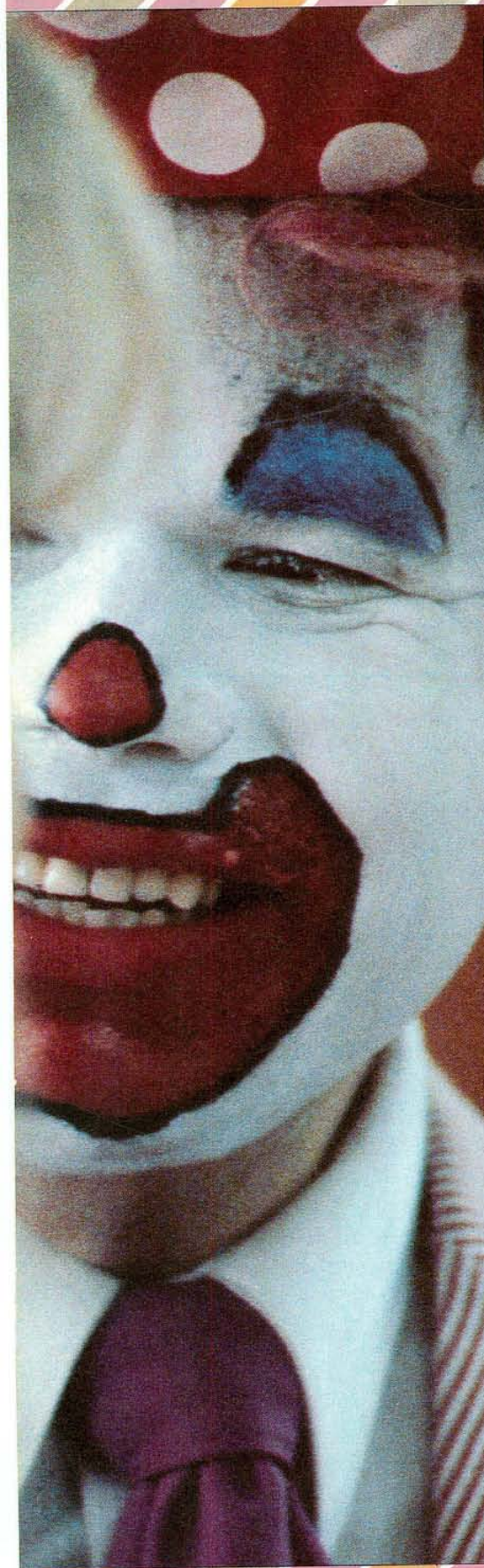
광대의 보상

개인적인 성장 이외에도 이 광대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하여 훌륭한 추억을 보상받고 있다. “우리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때는 우리 모두 겁이나서 죽을 지경이었읍니다. 우리는 불구가 된 어린이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처신하게 될지 잘 몰랐읍니다. 우리는 공연을 끝내고 나서 간호원에게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어린이가 있었는지 물었읍니다.

“그녀는 우리를 자동차 사고로 문자 그대로 얼굴이 짓이겨진 소년의 방으로 데리고 갔읍니다. 마치 그의 얼굴은 고기 가는 기계가 문개고 지나간 것 같았읍니다. 그는 너무나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했읍니다. 우리는 걸어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네가 보고 싶었다. 우리는 너에게 특별한 풍선을 주고 싶었다.’ 처음에 그는 정말로 부끄러워했읍니다. 그러나 곧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 광대들이 아주 자랑스러웠읍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읍니다.

“그들이 모두 끝낼 무렵에는 그 소년이 이야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우호적이었읍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 방에는 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광대가 서너명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자신이 곧



광대로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된 느낌을 갖습니다.

수술받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우리는 모두 그에게 최대의 행운이 있도록 기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보상이 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번은 장애아 및 정박아 야구 시합에서 광대들이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큰 차이로 지고 있는 팀을 떠맡았다. 그 팀의 선수들은 그들에게 진짜 광대들로 이루어진 응원대가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포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타석으로 나가는 소년의 이름을 알아내고는 ‘헤이, 찰리, 해낼 수 있어. 힘내, 프레드!’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들은 점수를 두배 이상이나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그 시합의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떠날 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극히 적을 수도 있으나 광대에게는 그 적은 것이 임의 사항이 아니고 의무이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는 청중 속에 서반아어를 말하는 소년이 두 사람 있었다. 그들은 영어 농담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자신들이 좀 도외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광대들은 그들의 빈약한 서반아어를 충동원하여 이개국어로 광대노름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그 소년들이 살아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 광대들은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저들과 느낌을 함께하는 예민한 이해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얻었다. 토니 로미쉬는 이렇게 말한다. “광대로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우리 자신을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과 불구자, 흑인과 백인, 어린이와 노인, 빈자와 부자 등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대로서 모든 사람을 가까이 느낍니다. 차별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놀릴 때가 흔히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멈춰서 그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옹호해야 합니다.”

이 광대들의 성공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부카난 형제이다.

그는 이 청남 회원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는 그의 토요일의 대부분과 수많은 평일 밤을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나에게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겨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은 나의 제 이의 가족입니다.”

즐거움과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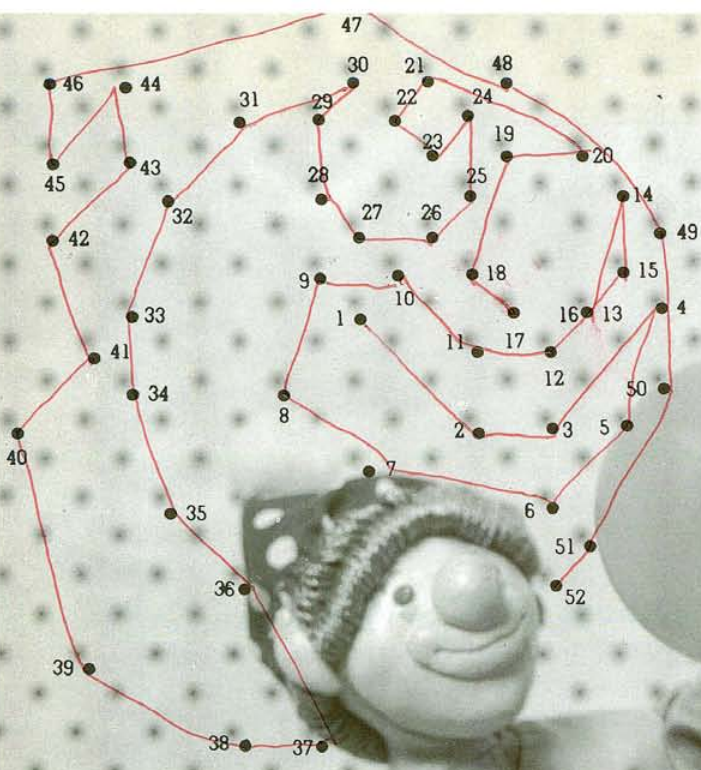
광대 노름은 독특하고도 비이기적인 성격의 공연이며 봉사이기도 하다. 광대는 박수를 받지만 그에게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은 그 광대의 광대 이름은 알지만 그의 본명은 절대로 모른다. 개인적인 명성은 없으며 단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훌륭한 느낌 뿐이다.

그러나 이 광대들이 그들이 봉사하는 어린이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은 어떤 명성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중에는 아파 누워 있다가도 그 훌륭한 느낌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공연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이 여럿 있었다.

광대 노름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까지 만들어진 온갖 형태의 봉사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형태의 봉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소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봉사 사업을 하는 것은 즐거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봉사. 봉사의 즐거움. 형제애와 사랑과 순수한 웃음에서 오는 감미롭고 상처를 고쳐주는 기쁨. 제 207 탐험대는 마음을 승화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승화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승화시킬 수 없다.

점 잇기



어린이 차지





또 다른 종류의 용기

루이즈 허드

그 책의 어떤 소년은 집과 밭에 불이 났을 때 두 여동생을 구했다. 어떤 소년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안 계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먹을 식량을 구해야 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곰, 이리떼, 굶주림, 때로는 인디언 탈주자 등 개척자 어린이들이 겪었던 위험이 많이 나와 있었다. 트렌트는 자기가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했다. 나갔으면 그런 시련에 곳곳하게 맞설텐데! 이리떼와 곰에게 겁을 주어도 망가게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는 소년단에서 흑시 동생과 함께 길을 잃게 될 경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소녀가 한 것처럼 눈속에 굴을 만들어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마지막 남은 것이라도 빵 한 조각을 배고픈 어린이와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트렌트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일년 내내 어떤 빵이든지 신선한 과일이든지 야채든지 심지어는 과자까지도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사 주실 수 있다.

마침내 친구들의 고함 소리가 트렌트의 공상을 깨뜨렸다.

제리드가 소리쳤다. “트렌트, 어떻게 된거냐? 귀가 멀었니?”

“아니, 왜?”

“우리가 너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말이야”라고 톰이 말했다.

“뭘 하려고?”

“누가 알아? 뭔가 할 것을 찾아낼 때까지 그냥 걸어다닐꺼야.”

트렌트는 참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서 굵은 나무 가지 위로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앉아 있었다. 밑에서 채리드와 톰이 부르는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조금 전에 읽고 있었던 어떤 책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께서 생일에 개척자 어린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는 그 책을 한 동안 읽은 다음 침대 위에 놓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개척자 어린이들과 그들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했다.

트렌트는 너희들은 틀림없이 찾아낼꺼야라고 생각했다. 재리드와 톰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지만 최근에는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다. 트렌트는 나무에서 절반쯤 기어 내려와서 땅으로 풀쩍 뛰어내렸다.

재리드가 “위에서 뭘하고 있었니?”라고 물었다.

트렌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읽고 있었던 이 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어. 그것은 말야——”

“책이라고! 책읽는 것보다 더 좋은 할 일이 없니?”라고 말하면서 재리드가 비웃었다.

트렌트는 너무나 낮이 익은 그 검은 눈과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 뒤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면서 재리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톰도 겨우 육 개월 전에 이 동네로 이사왔지만 친형제만큼 잘 알게 되었다.

트렌트는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된거냐, 재리드. 너도 책읽는 것을 좋아했잖아. 내가 좋아 하는 다른 것도 좋아했잖아.”

재리드는 트렌트의 질문을 무시했다.

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것봐. 레기가 오고 있어. 저 애에게 장난치자.”

레기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한 손에 종이 상자를 꼭 쥐고 킁킁 거리며 언덕 위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 오고 있었다. 레기는 열심히 했지만 잘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으며 학습 부진아를 위한 특별반에 다니고 있었다.

레기가 가까이 오니까 톰이 이렇게 말했다. “어이 이봐. 너같은 바보는 이 길로 다니면 안돼.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

레기는 자전거를 멈추고 발로 땅을 짚었다. 그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톰은 계속해서 “왜 그래? 길을 몰라?”라고 했다.

재리드가 킬킬거렸다. 레기는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체격도 더 컸으나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톰이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지?”라고 물었다.

“과자”

재리드가 상자를 레기로부터 뺏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디 좀 보자. 어찌면 그 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리드는 과자를 쏟아내었으며 톰과 함께 둘이서 나누기 시작했다.

레기는 몇번 눈을 깜박거렸으며 트렌트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레기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어. 일을 해서 번 거야.”

톰이 조롱했다. “그래?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지? 신발 끈을 잘 땀니?”

“셔츠의 단추를 잘 잠겼니?”라고 재리드가 덧붙였다.

트렌트는 자기 눈에도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제일 친한 두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는 “그만 해!”라고 소리쳤다.

톰과 재리드는 놀라서 그를 쳐다 보았다. 레기까지도 놀란 것 같았다. 트렌트는 과자를 친구들의 손으로부터 뺏었다.

톰이 “이봐. 우리는 그저 장난치고 있을 따름이야”라고 말했다.

트렌트는 과자 상자를 다시 레기에게 주면서 “레기한테는 장난이 아니지 그지?”라고 말했다.

레기는 “그래”라고 뺨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트렌트는 레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자. 나하고 함께 걸어 가자”라고 말했다.

트렌트와 레기는 두 사람 사이에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전거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레기는 트렌트에게 그의 새 강아지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트렌트는 손을 흔들며 헤어질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기분이 좋았다. 비록 그의 책에 있는 개척자 소년들처럼 굶주림이나 고통에 맞서지는 않았지만 레기를 돕기 위하여 자기 친구들에게 맞섬으로써 그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용기였다.





아동드 포라이브 드림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암몬

모사이야 왕의 아들인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레이맨인에게 전도하러 가게 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레이맨인들은 피흘림을 즐겨하는 사악한 사람들이므로 모사이야 왕은 아들들에게 안된다고 했지만 한번 주님께 기도하여 여쭙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로 떠나게 하라. 많은 무리가 저들의 말을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가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너의 아들들을 구원하리다”고 하셨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교사가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암몬의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소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이라헤물라 땅을 떠나 레이맨인들이 살고 있는 니파이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도중 자주 금식하며 레이맨인들에게 진실을 알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레이맨 땅 변방에 도착한 후 그들은 헤어져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암몬은 형제들 곁을 떠나 혼자서 이스마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붙들려서 감옥살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레이맨인들은 그를 적으로 여겨 퐁퐁 묶어서 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여야 할지 물었습니다. 레이맨인들에게 둘러싸인 암몬은 두려움 없이 라모나이 왕 앞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라모나이는 암몬에게 레이맨 땅에 살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암몬은 겸손하게 “예, 오래토록, 아니 죽는 날까지 이 백성들과 이곳에서 살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이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를 풀어 주고 왕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선교 사업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씀드리고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암몬과 다른 종들이 왕의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갔습니다. 그때 레이맨의 나쁜 무리들이 와서 왕의 양떼를 흩어 버렸습니다.

왕의 종들이 탄식하며, “양떼가 흩어졌으니, 이제 왕이 우리를 죽이겠구나”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기뻐하며, “자, 이제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저들의 환심을 얻자. 그러면 저들이 나의 말을 믿으리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암몬이 저들을 위로하며 “형제들아, 양들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왕은 우리를 죽이지 않을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종들은 부리나케 양떼를 모았으나 또 그 사악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암몬은 동료들에게 “너희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둘러 서있으라. 내가 저 나쁜 사람들을 처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레이맨 악당들은 그들 중에 누구든지 쉽게 암몬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사이야 왕에게 그의 아들들을 레이맨인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암몬이 혼자 저들앞에 나섰습니다.

암몬은 투석구를 사용하여 사악한 사람 여섯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들 악당은 암몬에게 돌 하나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때를 지어 덤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암몬은 칼을 뽑아 그들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들은 기겁하여 암몬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양떼를 몰아 온 종들은 그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잘린 팔들을 가지고 라모나이 왕께 가서 그 일을 본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이건 확실히 인간 이상의 능력을 지닌 이로다. 보라. 살인을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위대한 영이 아니냐?”고 생각하였습니다.

종들은 “그가 위대한 영인지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나 왕의 원수들이 죽이지 못할 사람이며 저들이 그의 재주와 무서운 힘을 겁내어 그가 우리들과 함께 있는 한 왕의 양떼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종들에게 “놀라움게 힘이 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저들이 “예. 대왕의 말을 먹이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모나이가 말하기를, “일찌기 내 종들 중에 이처럼 충실한 종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저가 종들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기억하여 행하는도다. 저가 틀림없이 위대한

영임에 내게로 들어오기 원하나 감히 청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암몬이 그의 일을 다 마치고 왕께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라모나이 왕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도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그를 멈추게 하며 말하기를, “랩보나여, 왕께서 당신이 여기에 계셔 주시기 원하시나이디.”

암몬이 왕에게 돌아서서 여쭙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나 왕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암몬은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왕께서 제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을 들으시고 놀라신 때문이오니까? 저는 사람이며 당신의 종이니, 정당한 일이면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나이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왕은 입을 열어 “당신은 누구시오? 만사를 모두 아시는 위대한 영이시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암몬은 그에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고 이런 큰 일을 해냈습니까?”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의 말을 믿으시겠나이까?”라고 암몬이 물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겠나이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믿겠나이디”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라모나이 왕은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암몬은 하나님, 세상의 창조, 사람이 사는 목적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리하이, 레이맨, 레뮤엘, 니파이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암몬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믿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나와 이 백성들에게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말을 마치자 그는 땅에 넘어져 죽은 듯하였습니다. 라모나이의 종들이 그를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는데, 이틀 낮, 이틀 밤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암몬을 불렀습니다. 암몬은 라모나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내일 일어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왕비는 암몬의 말을 믿었으며, 다음날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약속한 대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본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대한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의 뜻으로 감동되어 다시 쓰러지고 그의 종들도 에이비시라는 레이맨 여자 하나만 남겨 놓고 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본 놀라운 시현으로 인하여 벌써 여러 해를 두고 하나님을 믿어 왔던 것입니다. 에이비시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믿게 되기를 바라며 달려 나가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놀라운 일을 보려고 모여 들었습니다. 달려온 사람 중 한 남자는 암몬에게 맞아 죽은 그 사악한 사람의 형제였는데 그는 앞으로 나와 칼로 암몬을 죽이려 했으나, 칼을 빼어 들자 곧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비시는 이런 일을 부끄럽게 여겨 왕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도 깨어나 그 백성들이 다투는 것을 말했습니다. 곧 쓰러졌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고 라모나이는 암몬이 전하는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땅에 선 후에, 주님은 암몬에게 그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라모나이가 함께 왕의 수레를 타고 그들을 구하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라모나이의 땅 경계에 도착했을 때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을 위해 배푸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더냐?”고 호통쳤습니다.

라모나이는 아버지께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고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며 라모나이에게 암몬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라모나이는 “암몬을 죽이지 않겠나이디”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난 왕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라모나이를 치려고 칼을 빼어 들었으나 암몬이 그 앞을 막아 서며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라모나이의 아버지는 암몬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오히려 재빨리 그의 팔을 찌르고 죽이겠노라고 했습니다. 라모나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 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며 이 나라의 반이라도 드리겠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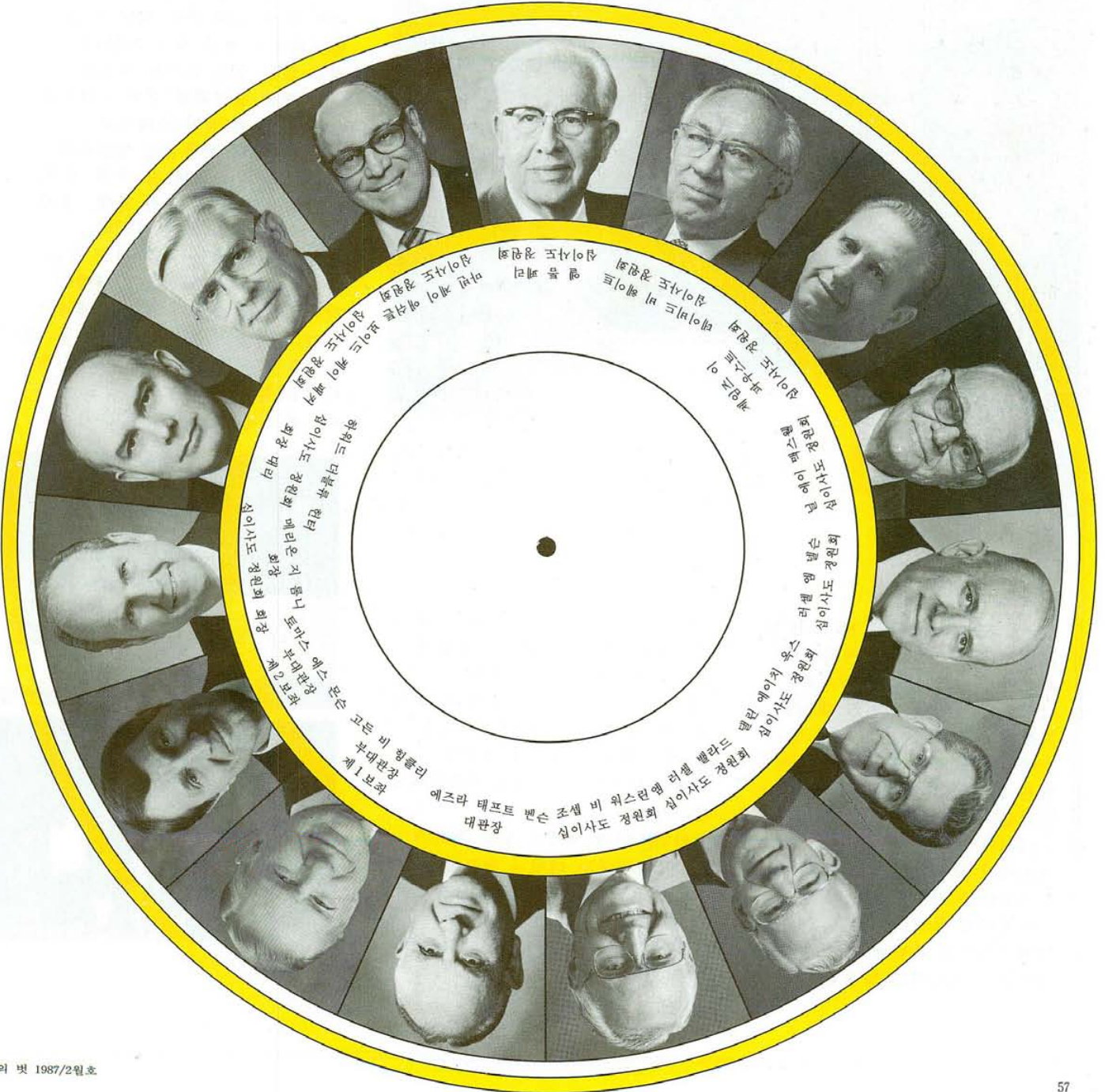
암몬은 많은 재물과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단지 “당신이 감옥에 갇힌 나의 형제들을 풀어 주고 라모나이에게 그의 왕국을 맡겨 그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하신다면, 살게 하리디”라고 말했습니다. 라모나이의 아버지는 암몬의 라모나이에 대한 사랑과 욕심없음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해주었으며 암몬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맨 땅 백성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마서 17장~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알아봄

유의 사항 : 이 페이지를 성도의 벗에서 떼어내어 가벼운 마분지에 붙인다. 바퀴와 지시기를 올려낸다. 지시기 위에 있는 점선을 따라서 작은 원을 조심스럽게 올려낸다. 그 다음에는 점선만 따라서 창문 덮개를 올려낸다. 점을 이으면서 지시기를 그림(사진) 바퀴에 붙인다.

지시기를 돌리면서 원에 나타나는 총관리역원의 이름을 낸다. 지시기 위의 덮개를 들어올려서 자기 답을 점검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지명될 때는 그림(사진) 바퀴를 고칠 수 있다.



이천 전도소 개설

강서 와드 헌납식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에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 스테이크 산하 강서 와드의 헌납식이 있었다.

강서 와드 회원 및 스테이크 내의 여러 단위 조직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서 와드 회원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새로운 건물을 가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서 와드가 더욱 발전하도록 간구하였다.

또한 이 모임에는 한국 관리 본부 대표인 한 인상 장로와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신년 교례회

대구 스테이크는 1987년 1월 3일 오전 11시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 스테이크 부장단 및 서기, 고등 평의원, 감독단, 지부장단, 장로정원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의 “오직 선한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중”이라는 말씀에 이어 강 경구 부장과 몇몇 고등 평의원의 간증이 있었다.

또한 지난 한 해의 활동을 회고하며 1987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스테이크의 중점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무언의 결심을 하기도 했다.

상호부조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민속 놀이인 윷놀이를 함께 즐기며 이 정묘년도 교회가 희망과 발전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모든 참석자들은 다짐하였다.



앞줄 가운데 두 분이 도 길회 선교부장 부부

배우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천 및 인근 지역에 연고자가 있는 회원들은 선교사들에게 연락하여 회복된 진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다음은 연락처 및 선교사 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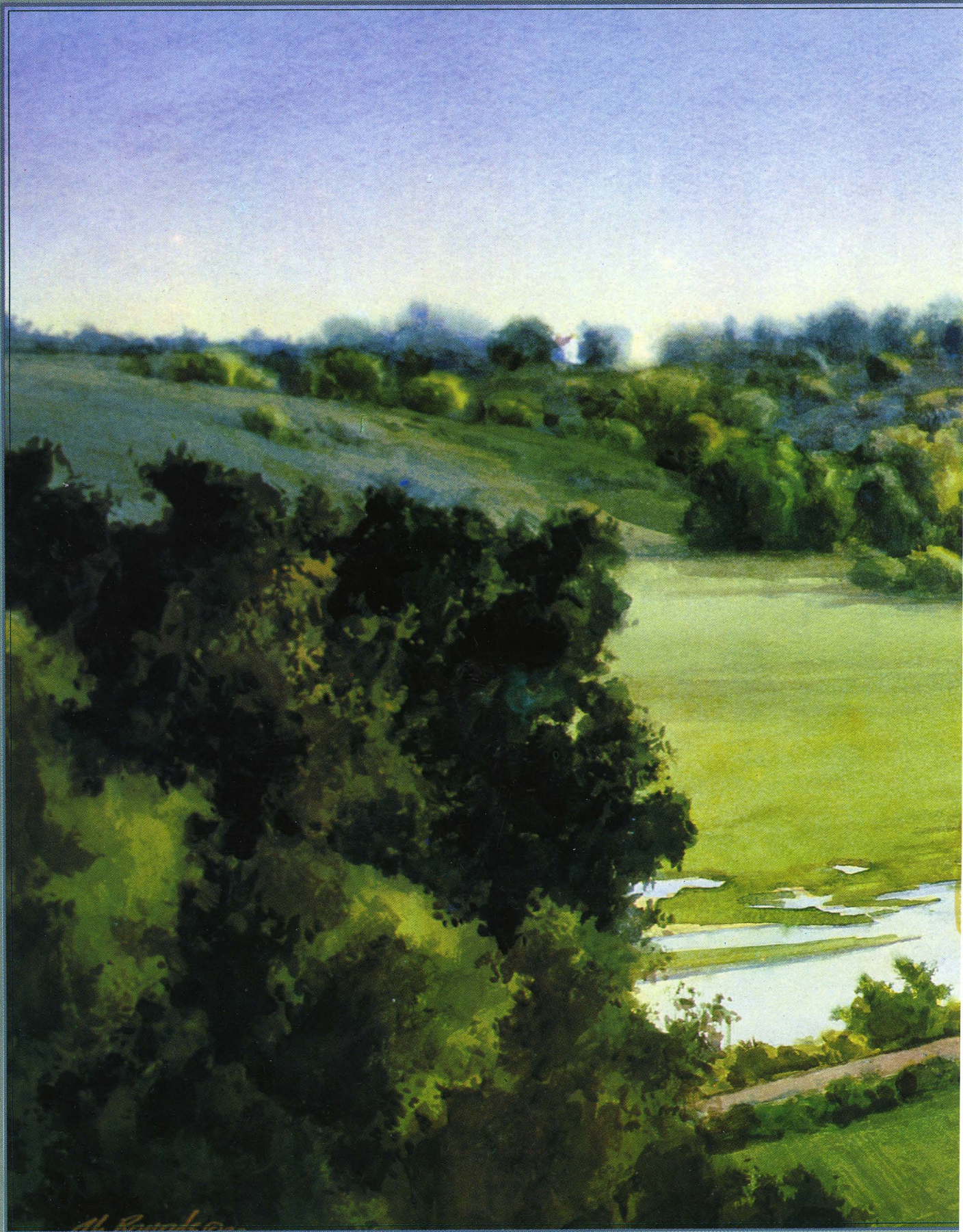
주 소 : 172 경기도 이천 우체국
사서함 14호

선교사 : 스노우 장로, 이 현종 장로,
최 남현 장로, 김 영권 장로.

서울 서 선교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 경기도 이천에 이천 전도소를 개설하였다.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도 길회 선교부장 부부, 선교사, 회원 등 10명이 조그마한 이층 방에 모여 이천 전도소를 헌납하는 역사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도 선교부장은 이천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기적적인 선교 사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였고, 주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회복된 복음을



Al Bunker